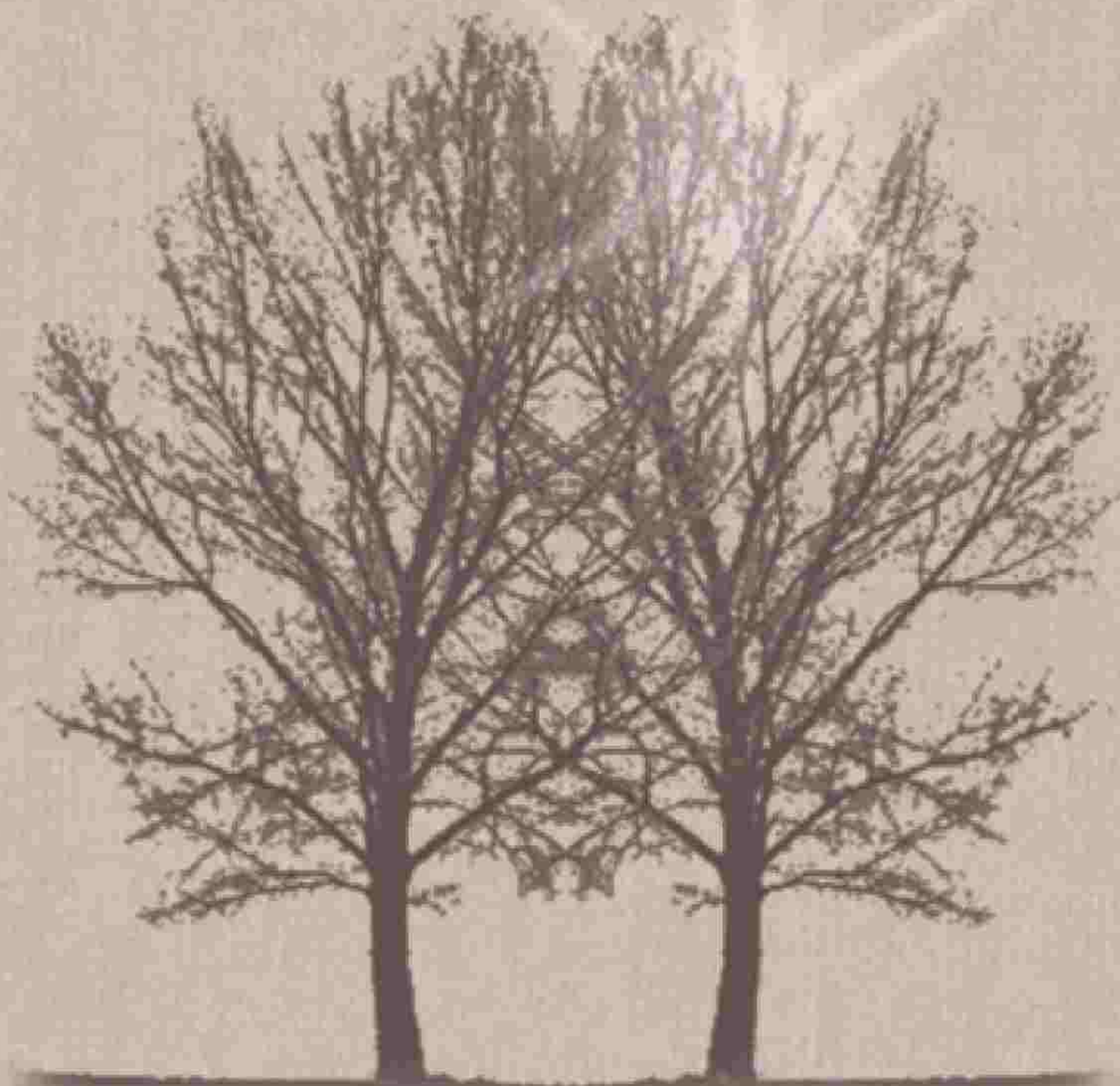



39^{2009 - 2010} 정혜사



송광사 전통강원



■ 조계의
물소리

정혜사志가 다시 발간됩니다.

그동안 정혜사지는 고질적인 예산문제를 겪어 왔었고, 전문 편집인이 만드는 송광사지가 발간되면서 안팎으로 무용론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지난 겨울 편집장 스스로 폐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38호를 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사(誌)는 통상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이 아니라 송광사 학인 스님들의 지대방과 같은 소통의 장이며, 공부한 결과물을 내보이는 역할을 하기에 효율을 따지는 경제논리로 폐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 1회 발간하여 한해를 마감하는 형식의 학인지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9호를 편집하며 지난 호를 돌아보니 호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세련되어지고 틀이 잡혀 나간 반면, 온전히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편집해 내는 순수한 맛과 현장성은 사라져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혜사(誌)」는 문서포교와 대외적으로 강원을 알리는 역할은 송광사지에 맡기고 학인스님들이 스스로 독자가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로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솔직하고 담백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목 차



- 70 강원소식
- 69 강원후원내역·후원안내
- 62 학인기고
- 56 목우단상
- 54 詩가 있는 풍경
- 44 정혜탐방
- 30 지대방 이야기
- 6 기획 「강원이 듣는다」
- 4 방장스님 법어
- 2 사진 속 이야기

定慧社

불기 2553년 통권 제39호

발행인 | 일귀(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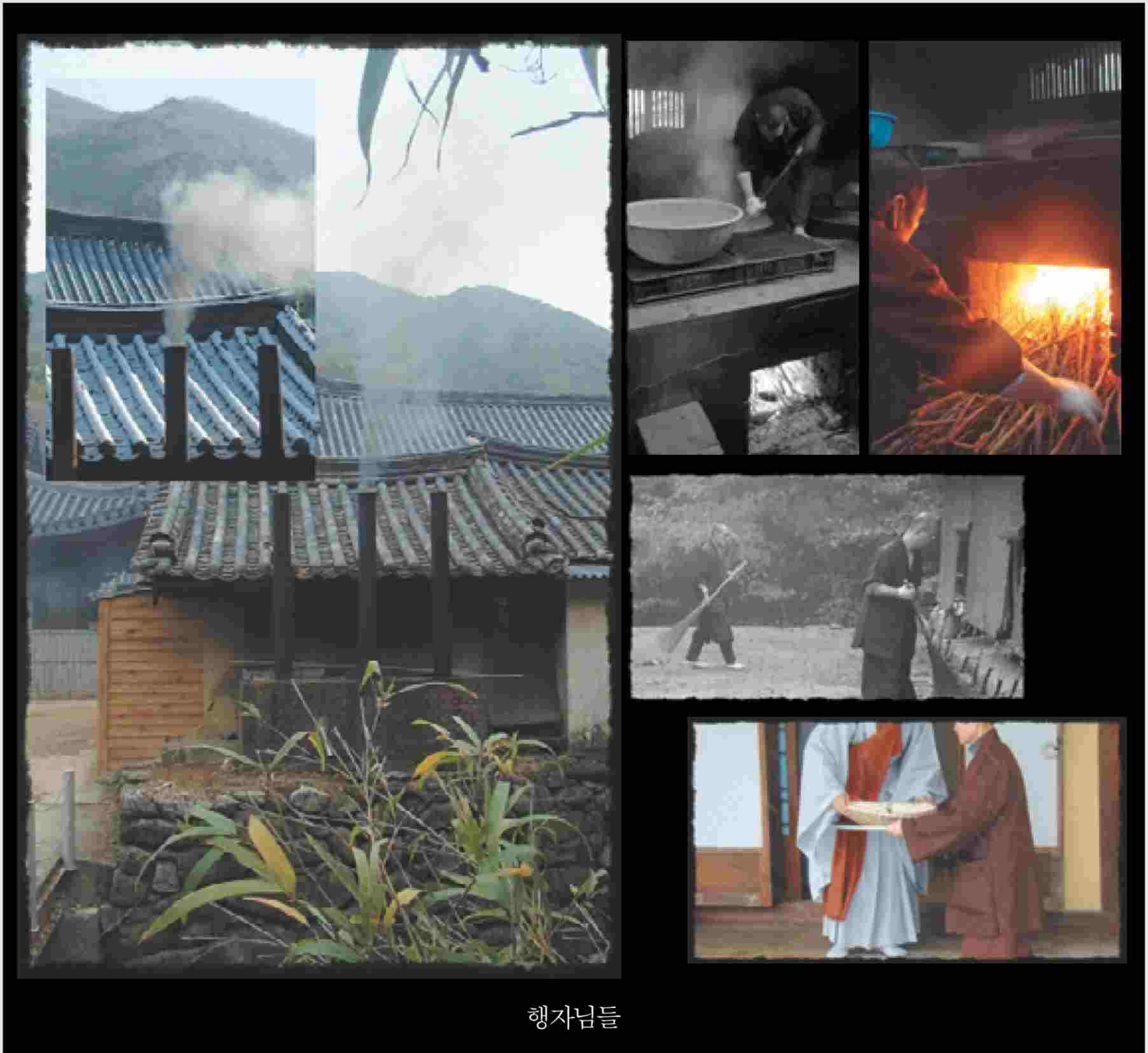
편집인 | 자옹(입승)

편집장 | 설산, 정목, 혜연

발행 | 송광사강원 061) 755-5302

인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표지디자인 | 혜원(백양사)



一拋名利場，萬事多閑閑。笑傲北窓下，自喜陶陶然。



도량 청소 운력

명예와 이익의 세상 한번 버리고 나니
만사가 모두 한가로울 뿐,
북쪽 창 아래에서 맘껏 웃으니
스스로의 즐거움이 넘쳐 흐르네.

- 매월당 김시습 -

하안거 결제법어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하시길”

이번 하안거 결제법문은 고불고조(古佛古祖)께서 여출일구(如出一口)로 말씀하신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원수삼학무편측(圓修三學無偏昃)은	불조수행경절로(佛祖修行徑截路)라
계기견고정수청(戒器堅固定水淸)하고	정수청정혜월원(定水淸淨慧月圓)이라
무계지정여사수(無戒之定如死水)하니	사수잠용무활력(死水潛龍無活力)이요
무정지혜개건혜(無定之慧皆乾慧)라	생사로상무용처(生死路上無用處)라.

고인(古人)이 말씀하시기를 계정혜(戒定慧)는 솥발(鼎足)같아서 발하나만 짧아도 솥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셨다. 계행(戒行)없는 공부(工夫)로서는 정(定)은 식은 재 같아서 종일(終日) 앉아 있어도 자는 것처럼 치심(痴心)만 더할 뿐이요, 정(定)없는 지혜(智慧)는 평생(平生) 아는 소리로 남을 속이면서 자기(自己)가 깨쳤다고 자랑하고 남들도 선지식(善知識)으로 알고 받들지만 죽을 때는 자기(自己)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손발을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험한 꼴로 죽게 되고 설사 사리(舍利)가 난다해도 방광(放光)이 없는 모래알 같은 사리(舍利)가 날 것이다. 그래서 고인(古人)의 말씀에 “네가 지금 큰소리치지 말라 안광낙지(眼光落地)할 때 보면 아느니라”고 하였다.

조선조(朝鮮朝) 선지식(善知識) 연담(蓮潭) 유일선사(唯一禪師)는 이런 계송(偈頌)을 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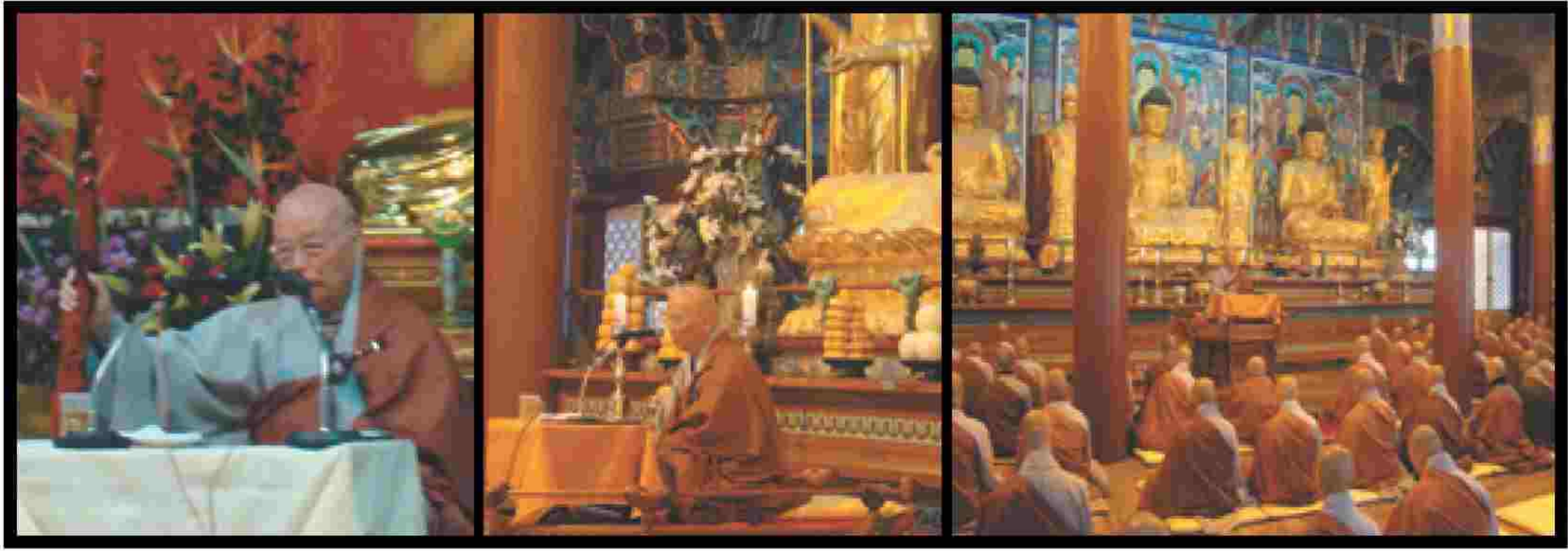
입정두라천겁정(入定頭陀千劫靜)이요 다문존자일생망(多聞尊者一生忙)이라 정(定)에 든 가섭은 천겁(千劫)을 고요하고, 많이 아는 아난은 평생을 바빴구나 하였다.

금일(今日) 결제대중(結制大衆)은 시은(施恩)을 저버리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精進)해서 늦어도 백중(百中)까지는 칠통(漆桶)을 타파(打破)하기 바랍니다.

야행막답백(夜行莫踏白)하라 불수정시석(不水正是石)이니라 밤에 흰 것을 밟지 말라. 물이 아니면 돌이니라.

주장(柱杖)을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定慧社





동안거 결제범어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일 뿐.”

오늘은 동안거 결제 날입니다.

오늘 결제법문(結制法門)은 중국 무착조사(無着祖師)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착스님은 아무리 애써서 용맹정진(勇猛精進)해도 눈이 열리지 않아 공부방법(工夫方法)이 잘못되었는
 가 싶어서 오대산(五台山)에 가서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공부방법(工夫方法)을 묻기로 결심(決心)하고
 문수보살을 친견(親見)하고자 열심히 기도(祈禱)를 하던 중에 죽을 쭈다가 죽이 넘쳐 솔뚜껑을 여는 순간
 죽 거품마다 문수보살 얼굴이 나타나자 크게 깨치고 오도송(悟道頌)을 지으니

무착자무착(無着自無着)이요 문수자문수(文殊自文殊)라
 필경무내외(畢竟無內外)인데 여하현즉상(如何現粥上)고
 무착은 무착일 뿐이요, 문수는 문수일 따름인데, 안과 밖이 다르지 않거늘 왜 죽 위에 얼굴을 나타내고.

문수보살이 인가(認可)하는 답을 하니

고과연근고(苦瓜連根苦)요 감과철체감(甘瓜徹蒂甘)이라

수행삼기겁(修行三祇劫)하야 각피노승혐(却被老僧嫌)구나

쓴외는 뿌리까지 쓰고, 단외는 꼭지까지 달구나. 삼아승지겁을 수행해서 노승의 꾸지람을 듣게 되다니.

금일(今日) 결제대중(結制大衆)은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공부(工夫)해서 시주(施主)의 은혜
 (恩惠)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혹(或) 금일 대중 가운데 무착스님의 깨친 소리를 아는 이가 있
 거든 어묵(語默)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 보시오.

수불역류(水不逆流)니라.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느니라. 下坐 定慧社

기 획

「강원이 듣는다」

현대의 승가는 윤리, 복지, 인권, 환경 등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 송광사 강원은 대표적인 전통 강원으로 곳곳이 옛 방식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9호에서는 이런 방식이 혹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귀를 막고 내 소리만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취지로 강원이 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선, 교, 포교 및 사회복지, 재가의 목소리 등 각 분야의 어른스님, 선배스님께 강원 스님들께 차 한잔 내주시며 하시는 말씀들을 글로 써 주 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정스님, 혜남스님, 진화스님, 진오스님께서 글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을 부탁드리면서 당신의 분야를 대표한 견해를 꼭 넣어 달라 했는데 의정 스님은 선사답게 차나 한잔 하라는 뜻으로 차에 관해서 또 혜남 스님은 강백답게 옛 강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장문의 논을 보내주셔서 귀찮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진화스님과 진오스님은 현장에서 부딪치는 경험에서 나오는 글로써 자칫 초심자로서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참여와 소통.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합니다. 네 분 스님께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획을 진행하면서 초기불교와 관련해서는 연락드린 스님들 모두 바쁜 일정과 저술활동으로 난색을 표하셔서 근래의 초기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가의 불교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연락드렸던 신부님과 목사님들은 바쁜 일정도 이유가 됐지만 강원지에 글을 심는다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승가와 재가, 불교와 이웃 종교들이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과연 옛 송광사 강원의 선배스님들은 강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지금의 저희에게 무엇이든 말할 것인지 1995년 있었던 죄담을 편집해 실었습니다. 15년 전 과거로부터 온 편지이지만 당시의 분위기와 강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도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선다례 禪茶禮

의정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장)

조계종 수행지침 간화선 편찬위원, 조계종 <선원청규> 편찬위원장

예로부터 선(禪)과 차(茶)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수선남자들은 선수행과 다도를 일치시켜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선풍을 진작시켰다. 특히 수행인에게 있어 차는 좌선삼난(坐禪三難 ① 망상을 막기 어렵다. ② 졸음을 쫓기 어렵다. ③ 안좌(安坐)하기 어렵다.)을 극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종자를 키워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선(禪)과 차(茶)의 만남은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세계인 다도(茶道)라고 하는 출중한 선문화(禪文化)를 탄생시켰다. 이는 선의 사회화에 큰 공헌을 하였고 일상생활을 통해 선정을 닦는 생활선(生活禪)을 극대화시키고 유포시켜 선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선다일여사상(禪茶一如思想)을 살펴보면

백장회해(百丈懷海, A.D720~814)선사는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제정하면서 차를 수행과 총림의식에 접목시켜 선농일치(先農一致)와 더불어 선다일치(禪茶一致)라는 생활선을 제창하여 조사선(祖師禪)을 부흥시켰다.

송나라 때 자각종색(慈覺宗曠)선사가 저술한 「선원청규(禪院淸規)」에서는 결제와 해제 때, 각 소임자가 바뀔 때, 입실제자가 생겼을 때, 방장과 수좌, 유나가 대중과 외부인을 접견할 때 등 모든 총림행사에 차로써 예를 행하였으며 원나라 때 동양덕휘(東洋德輝)선사가 증편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에서는 각종 기도와 4대명절, 방장취임, 제조사기일, 장례 보차, 청차 등 일체 총림행사에 차례를 행하여 선다일치(禪茶一致)를 생활화 하였다.

육우(陸羽, 733~804)는 차의 최고 고전인 「다경(茶經)」에서 차의 근원(根源)과 그릇, 만들기, 달이기, 마시기, 산지, 고사, 다구의 그림 등 차의 모든 것을 정리하였다. 이는 세계 최초의 차 전문 서적이며 차에 관한 모든 학문의 지서이자 선차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선사는 120세를 살면서 많은 유명한 화두를 남기며 선종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때는 도를 묻는 납자들에게 “차 한잔 마시고 가거라 [喫茶去]” 라는 조주청다가풍(趙州淸茶家風)을 세워 차를 화두로 승화시켜 선다일여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 이는 선종의 4대 가풍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후에 차와 관련한 화두 40여 개가 보일 정도로 선다일여가 보편화 되었다.

백운수단(白雲守端, 1024~1072)선사는 양지방회(楊枝方會)선사의 법제자로 차를 마시다가 홀연히 깨달은 후 법을 잇고 차를 마시면서 선 수행을 하는 다담선(茶湛禪)을 개창하였다. 그리고 명선(茗禪)이라는 화두와 화경청적(和敬淸寂)의 선의 정신으로 승속을 교화하여 선다일여의 생활선을 구체화시켰다.

총림에서 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차 역시 자급자족하여 오랫동안 차를 만들어 왔고 그 품질이 뛰어나 명품차로서 명성이 높았다.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眞如禪寺)에서는 1200년 동안 차를 재배해 왔고 그 면적이 100무(畝)에 달해 지금도 해마다 찬림차(瓊林茶) 일천근을 생산한다.

사천성 아안의 몽산차는 감로사의 보혜(普慧)선사가 처음 재배한 것으로 품질이 우수해 명품차로 진공품이 되었고, 복건성 무이산에서 생산되는 무이차(武夷茶)는 무이사 승려들이 만들었으며, 강소성 동정산 벽라봉에서 만든 벽라춘(碧螺春)은 수월선사가 만들어 오늘날까지도 명품차로서 그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다.

당송시대에는 역대 대종장들과 총림에서 수행하던 많은 선사들이 차를 직접 재배하고 법제하여 마시면서 수행하는 것이 일상사가 될 정도로 선차문화가 꽃을 피웠다.

우리나라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조사선(祖師禪)이 전래되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선차가 전래되어 선다일치의 전통이 한국적 가풍으로 정착되었다.

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가야국 수로왕비인 허황후가 자신의 나라인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를 심었다는 기록(서기48년 7월)과, 또 「삼국사기」에 선덕여왕(632~647) 대 이미 차를 마시고 있었으며, 흥덕왕(828) 때 김대립이 중국에서 가져온 차씨를 지리산에 심어 널리 보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의식으로도 왕실행사에 격식을 갖추어 하는 진다(進茶)의례가 있었고, 충담선사가 경주 남산의 삼화령 부처님께 올렸던 헌다의식과 기우제 때 차를 올렸던 제례 등이 있었다. 고려 때는 차 문화가 가장 융성하게 꽃피웠던 시기로 왕실과 귀족, 승려,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음용되었다.

고려중엽에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 선사가 송광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 운동을 하면서 자각종색(慈覺宗曠)선사가 저술한 선원청규(禪院淸規)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취하여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을 만들어 청규로 사용 했으며, 고려 말에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2)선사는 동양덕휘(東洋德輝)선사가 증편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를 원본 그대로 선원에 보급 시행하였다. 청규의 영향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불전 헌공다례, 각종 천도재 다례, 조사 다례제, 대중 보차 및 청차, 접빈다례, 일상다례 등을 행하였으며 스님들은 공양이 끝나면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고 선승들은 참선 여가에 차를 마셨는데 이로 인하여 선다일미음다법(禪茶一味飲茶法)이 생겨났으며 많은 차를 충당하기 위해 다촌(茶村)을 두고 차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대각의천(大覺義天, 1055~1101)선사는 백운수단선사의 제자인 원조종본(圓照宗本)선사로부터 다담선을 배워 고려사회에 널리 전하였다. 대각국사 이후 진각(眞覺), 원감(圓鑑), 백운(白雲), 태고(太古), 나옹(懶翁), 함허(涵虛), 설잠(雪岑), 벽송(碧松), 서산(西山), 사명(四溟), 편양(鞭羊), 백암(柏庵), 설암(雪岩), 환성(喚惺), 연담(蓮潭), 아암(兒庵), 초의(草衣), 범해(梵海), 경허(鏡虛), 만공(滿空), 만해(萬海), 경봉(鏡峰)선사 등 고려에서 조선,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대다수의 선사들이 선다일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선시(禪詩)를 통해 잘 표현되어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의 다풍이 그대로 전해 내려왔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차 문화를 주도했던 사찰이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고, 차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차 문화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영조(英祖, 1694~1776)는 관혼상제나 명절 때 차 대신 술이나 끓인 물로 대신하라고 왕명을 내렸다.

그러나 사찰에서는 선다일치 사상과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 후의 초의(草衣, 1786~1866)선사는 한국 최초의 다경이라 불리우는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하여 차의 생태와 효능과 중국차의 소개, 우리 차의 우수함과 선다일치의 경지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고, 「다신전(茶神傳)」을 초록하여 차의 총체적인 것을 다루고 차의 체계를 정립하여 선다의 중흥을 도모하였다.

「다신전」 말미에 보면 ‘총림에 조주풍의 차가 있었으나 요즘은 사라져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초록해 보인다.’ 라고 기술하여 전통 다법이 사라져감을 아쉬워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찰에서 선차가 사라져 가고 있던 차에 경봉선사와 효당(曉堂)스님 등에 의해 조금씩 보급해 왔던 것이 최근에는 크고 작은 다도회가 무수히 생겨나고, 사찰에서도 차를 마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차 인구는 많이 늘었으나 선다일여의 정신은 쇠미하여 다시 중흥시켜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승가의 발우공양의식과 모든 의식은 진여연기론(眞如緣起論)의, 종체기용(從體起用), 섭용귀체(攝用歸體)의 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가에서 행하는 독특한 문화인 다례의식 또한 발우공양의식을 기본으로 삼아 그대로 실행하였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선가의 다례에 대한 기록들을 대강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전 헌공다례 : 불교의 4대명절과 영산재, 팔관회 등 큰 행사에는 다계와 함께 육법공양 혹은 별도의 헌공 다례 의식을 여법하게 행한다.
2. 천도재 다례 : 수륙재, 생전예수재, 각종 천도 다례재 등 행사에서도 다계와 함께 헌공다례 의식을 엄숙하게 행한다.
3. 조사 다례제 : 조사전에 모셔져 있는 조사 스님들에게 다례제를 올린다. 일 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다례제를 지내며, 창건주나 선은법사(先恩法使) 스님은 따로 다례제를 지낼 수 있다.
4. 부도 다례제 : 부도전에 모셔져 있는 선사 스님들의 부도에 일 년에 한번 날을 정하여 다례제를 지낸다. 예로부터 부도전 다례제에는 국수와 차를 올렸다.
5. 대중 보차(普茶) : 안거시 용상방 소임을 짤 때, 자자를 행할 때, 소참법문 할 때, 대중공사를 할 때, 납월 그믐날 보차 설법을 할 때 등 대중이 함께 모일 때에 다각스님은 차를 준비하여 여법하게 보차를 행한다.
6. 접빈(接賓) 다례 : 방장이나 조실, 수좌, 유나, 선원장 스님이 납자를 제접 할 때, 내·외빈을 접견할 때 시자는 차를 준비하여 접대한다.
7. 일상(日常)다례 : 평상시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는 일은 격에 맞되 번거롭지 않고 선다일여의 정신으로 수행생활의 연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다구(茶具)를 준비하고 차 마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은 선의 7대 정신인 간소(簡素), 탈속(脫俗), 자연(自然), 정적(靜寂), 유현(幽玄), 고고(枯槁), 불균제(不均濟) 등에 맞게 조화롭게 한다.
8. 다각실 다례 : 다각실은 선원 대중들이 방선을 한 후 차를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청결히 하였다. 다각 소임자는 다각실 분위기를 항상 선의 7대 정신에 입각하여 정진하는 대중이 정해진 시간에 부담 없이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다경」에서는 차 마시기 적합한 사람을 정미로운 행을 하는 사람, 검소하고 덕이 있는 사람[精行儉德] 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적암(寂庵)선사의 「선차록(禪茶錄)」에서는 ‘일심(一心)의 청정함을 그릇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밖으로의 사치를 경계하라는 뜻이다.

이는 선차를 잘못 이해하고 사치에 빠져, 금은보화로 만든 다기와 고가의 골동품 다기 등을 구입하여 사 용하면서 자랑으로 삼고, 차 한 통과 차 한편을 고가로 구입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 요한 가르침이다.

선다일치(禪茶一致)의 정신에서 벗어나 위와 같은 사치에 빠지면 수행과 깨달음보다는 인간정신의 황폐 함을 초래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다. **定慧社**

일제 강점기의 강원(통도사를 중심으로)

혜남 스님 (통도사 율주)

전)은혜사 승가대학원장, 해인사·법주사·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서언

필자가 1980년대에 일본 경도(京都)에 있는 용곡대학에 갔을 때 <개교300주년 기념>이란 플랜카드를 보 았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대학이 처음 세워진 진 것은 1885년 중등교육기관으로 세워진 배재학 당의 대학부를 말하는 것인데 ---

그렇다면 100년 조금 더 지났을 뿐인데 여기는 어찌하여 300년이나 된다고 하는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학교안내서를 읽어보니 현대교육이 들어오기 이전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불교전문강원의 역 사부터 모두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불교전문강원에 다닐 적을 생각해보니 통도사는 14, 5회(?) 범어사는 5 회(?)인 것 같은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통도사 범어사를 비롯한 우리 강원의 역사는 어찌하여 이렇게 짧을까?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우리 고대에 불교전문강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일본 사람들은 권력을 뺏고 실리를 다 챙겨도 남의 권위까지는 뺏지 않는 전통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왕은 아마테라스오오미가미(천조대신(天照大神))의 후손으로서 자기들 왕의 혈통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만세 일계(萬世一系)의 신성을 인정하여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호칭도 천황(天皇)이라고 부른다. 비록 소화(昭和) 천황이 인간임을 선언하였지만 오히려 국민과 더 가까워졌을 뿐 존경심에는 변화가 없다. 거기 에 비하여 우리 역사는 힘을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내쫓고 그 자취까지 쓸어버려 어떤 권위도 인정하 여 주지 않은 악습이 있는 것 같다. 해방이 되면 해방 이전 것은 전부 부정해버리고 정화이후에는 정화 이 전은 모두 부정해 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가 조사해본 결과 정화 이전에도 강원은 있었고 일제 때에도 강원은 있었고 대한제국 때에도 강원

은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강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강원도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1925년 진하스님의 입적을 전후한 강원도의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의 강원부흥과 혁신운동

우선 통도사 성해(聖海)대종사의 비문에 보면 성해스님이 통도사 주지로 계시던 1906년 즉 대한제국시대에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였다. 이 해는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설립한 해이다. 그러나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교계는 신교육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의 강원은 지방학림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참고로 일본은 이보다 앞서 신교육 우선 정책으로 기존의 강원은 대학으로 발전하고 기존의 강원 강사는 대학의 교수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 일본 승려들은 대처육식을 마음대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구승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종비를 지원하여 일본에 유학시켜 놓으면 하라는 공부는 건성으로 하고 일본승려의 나쁜 점만 배워 환속하는 승려들이 많아 이에 대한 반발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세태를 박승주〈전문강원 복구에 취(就)하야〉(〈불교〉32호 31쪽)에는

경문을 외우는 강학자의 입에서는 개조(改造), 혁신(革新), 활동(活動) 온갖 시대적 술어를 부르짖게 되며 가사를 메는 비구승의 몸에는 하이칼라 양복을 입게 되며 주장자를 잡던 선사의 손에는 외래품 스틱(단장(短杖))을 잡게 되며 인도식 비로관을 높이 쓰던 운수객의 두상에는 고관적 중산모를 쓰게 된 것 형형색색 모든 것이 외면으로 관찰하여서는 신불교국을 건설하는 감이 넘치는 듯하였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취할만한 것이 없고 오직 발견하는 것이 있다하면 내부(內部)의 퇴폐(頹廢)와 강기(綱紀)의 융해(融解) 뿐일 것이다.

이것을 보면 수구적인 승려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개혁을 부르짖는 승려들을 어떠한 눈으로 보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때(1925)에 대강백인 진하(震河1861~1925)스님이 입적하자 진하스님과 같은 강사를 배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1925년에 해인사 전문강원이, 1926년에 범어사 전문강원이 복원되고 개운사에도 박한영 스님을 모시고 전문강원을 개원하였다. 특히 개운사 강원의 개강에 대하여 〈불교〉28호는 “개운(開運)에 개강(開講)”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개운사는 -- 중략 --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하고 조선불교계에 독보인 박한영사(朴漢永師)를 청하여 강단에 주맹이 되게 하려는 터임으로 박한영사도 승낙하여 오는 10월 26일으로써 개강 하겠다하며 더욱 찬탄할 바는 금번 강원개설에 대하여 당사 안월송사가 강원도 고성군 소재인 25석(백미 125두(斗))의 수확을 받는 토지를 영원히 강원에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경성부 송인동 청룡사 주지 홍상근사는 강원에 대한 경비의 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당사 일반대중 60인은 여기에 대하여 지원금으로 삼백여원을 거출하여 열성적으로 하려한다하더라.

라고 서술한 것을 보면 당시 교계에서 개운사 강원의 개설에 대해서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류를 타고 수많은 강원이 개설 혹은 복원되어 1938년에 출판된 〈홍법우(弘法友)〉 제1집에 수록된

〈전조선학인명부〉를 보면 31개소의 강원 이름이 나온다. 이 시기에 강원교재는 대체로 지금과 같았는데 이것을 새롭게 바꾸려한 움직임이 있었다. 즉 1928년 5월에 출판한 〈불교〉46-7합호에 실린 〈조선불교학인대회를 보고〉의 “강원제도변경”란에 의하면

십인·이십인 내지 몇 십 명을 한 강당에 모아놓고 과정으로 크게 나누면 사집·사교·대교·선문이요 서명으로 구분하면 서장·선요·도서·절요·기신·능엄·반야·원각·화엄(화엄중에서도 현담·삼현·십지로 나눔)염송의 십여질이요, 게다가 치문·초발심·자경을 배우는 사미과 학인이 있다하면 열서넛 종의 교과서요, 다시 현담에 회현기, 반야에 判定記, 염송의 설화 또는 은과·사기를 并하면 수십여 종이 되는 교과목을 교사 즉 강사 일인이 전담 교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배당이다. 적어도 科別을 따라서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에 각각 담임하는 강사 共計四名은 되어야 할 것이요, 더욱 구족하려 하면 교과서 한가지만큼 담임강사가 있어야 할 것은 다시 擬議할 것도 없는 바이다마는 經濟·위치·資格·習慣 여러 가지에 의하여 강사를 일인 이상 초빙할 수 없게 되는 형편이다.

그러면 마치 학교에 보통·고등·전문·대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대교·사교·사집으로 나누든지 더 세밀하게 염송·화엄·원각·반야·능엄·기신으로 나누든지 하여 각각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게 하되 全朝鮮에 대교강원은 한·두개所, 사교강원은 다섯·여섯 개所를 適宜한 장소에 배치하고, 사집강원은 각본사마다, 사미과는 각 사원마다 정하게 하여 수학하는 것이 可하다한다.

위의 글을 보면 당시의 강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학인들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데 정화 이후에 우리들이 말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밖에 교재에 대해서도 〈금강경〉은 함허의 오가해 〈원각경〉도 함허해 〈기신론〉은 원효소와 별기를 사용하고 〈서장〉과 〈선요〉를 빼고 진각국사의 법어로 대체하며 〈치문〉을 빼고 조선 고조사의 저술로 대체하고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기 전에 한용운씨가 편찬한 〈불교한문독본〉을 읽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인도 중국 일본 조선의 불교사도 교재에 편입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면 조선불교학인대회를 개최할 당시에 벌써 강사의 자질과 교수법 및 교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932년 3월 〈불교〉93호에 수록된 철운 조종현〈강원교육과 제도개선〉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사집을 가르치는 것은 선과 교의 뜻을 바로 이해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선리와 교리는 알기 어렵다는 생각부터 일어나게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서장과 선요는 선문에서 화두를 제시하는 법을 설한 것이니 〈선문염송〉을 볼 정도의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요 도서는 선의 삼종과 교의 삼종을 회통한 것이니 선과 교를 이해하고 요달한 사람이 이해할 내용이고, 절요는 도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7대 돈점을 밝혔으니 이것들은 모두 고등과의 학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교는 경문보다 소와 초 및 기와 사기까지 너무 만연하여 오히려 대의(大意)를 수습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지금 학인수준 이상의 교재라 아니할 수 없다. 고 현제도를 비판하고 시대에 요구에 상응하는 외전도 습득할 것을 주장하며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에서 학습할 교재를 도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종현의 안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은 것은 아닌 듯하다. 즉 1932년 5월 〈불교〉95호에는 노약산인의 〈강원교육과 제도개선〉을 읽고에는 조종현의 안, 특히 강원교재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 안이 학인의 능력을 살피지 못했으며 학문의 전통과 방계를 이

해하지 못하고 교리의 발달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튼 강원교재 교수방법 등을 두고 논쟁은 있었으나 학인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은 찾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면 1934년 10월 13일의 조선일보에는 <통도사강원학생 단식동맹으로 투쟁>이라는 기사에서 통도사 강원생들이 강원 개선을 위하여 단식동맹을 시도하며 '학칙제정 교복착용 고등과(경전) 겸수(兼修) 외과선생 1인 증원을 요구 하였다. 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주지 황경운은 양복(교복)착용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고 고집한 것을 보면 당시에 학인들은 일반 학생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하고 소임을 맡았던 스님들은 학인들이 시류에 휩싸이는 것을 얼마나 염려하였는지 알 수 있다.

맺는 말

1928년부터 32년까지 하던 이야기들은 1960년 70년대도 하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원외의 어느 뒷방 아니면 강원외에 관심 있는 어떤 스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히려 지금이 더 보수적이고 인습(因習)을 버리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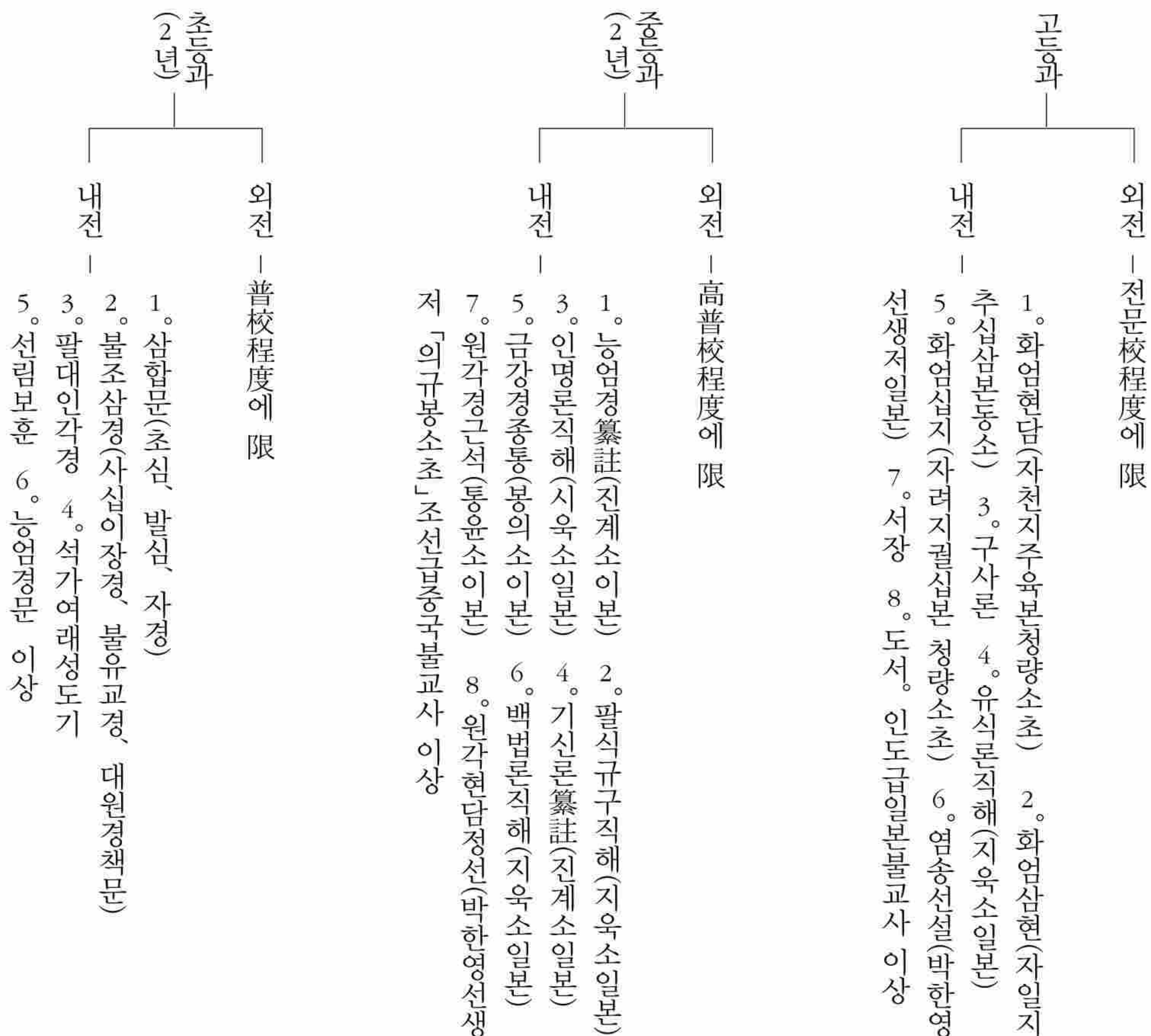
지금 강원 교재를 말하면 당연히 조계종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종풍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조계종의 정의를 화엄과 선이 결합한 선종(禪宗)으로 보고 사교입선 즉 교리를 버리고 선에 들어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교재는 잘된 것이다.

처음 사미과에 들어가면서부터 수선사 청구라고 불리는 보조지눌의, <계초심학인문>을 통하여 처음 발심하여 대중 속에 들어가 수행할 적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언어생활을 하고 어떠한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익히고 원효의 <발심수행장>을 통하여 세간의 욕락을 버리고 수행에 전념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야운의 <자경문>을 통하여 간화선을 위주로 하는 수행자가 수시로 자신을 경책하여 수행에 매진할 생각을 더욱 굳게 한 다음에 <사미율의>를 통하여 사미의 행동거지를 배우고 <치문>을 통하여 들뜬 마음을 막고 샅된 행동을 경계하여 수도에 전념할 마음을 내고 <도서>를 통하여 선과 교를 일심으로 회통한 다음에 <절요>를 통하여 샅된 알음알이를 배척하고 여실지견을 개발하며 <서장>과 <선요>를 통하여 올바른 참구법을 익히는 것이다. 사실 사집은 실참실구를 중시하는 선종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교 가운데 <금강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집착을 타파하고 모든 것이 공한 도리를 나타낸 경전으로서 600부 반야의 핵심을 드러내어 대승 공관을 닦기 위한 대승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능엄경>과 <원각경>은 선종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고 <기신론>은 여래장 사상을 잘 드러낸 논서로서 역시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이상으로 하는 선종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논서이다. 대교는 <화엄경>의 현답과 삼현 십지를 수학하는데 <화엄경> 자체가 만법을 통괄하여 일심을 밝히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화엄경소초>의 경우 그 저자인 청량징관은 남북선종과 우두선을 모두 수학한 선사로서 화엄과 법화 화엄과 선을 하나로 묶어 자기 교학의 속으로 끌어들이 이른바 화엄선이란 것을 만든 스님이다. 또 사교 가운데 <능엄경>을 해석한 계환은 <화엄>과 <법화>의 대가이고 <금강경>오가해를 쓴 여러분과 설의를 쓴 함허스님도 모두 선사이고 사집의 저자인 대혜종고 고봉원묘 규봉종밀 보조지눌은 화엄을 깊이 이해한 선사들이다. 만약 조계종이 화엄사상에 바탕한 선종이라면 우리 마음의 진망을 잘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곳에 이른 다음에는 오직 알 수 없는 화두만 참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원을 졸업하고 도 선원에 가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마지막으로 수의과에서는 <경덕전등록>과 <선문염송>을 가르쳐 만드

시 실참실구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재에 이상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집만 읽고 선원에 입방하면 발심한 사람이고 <초발심자경문>만 읽고 선원에 입방하면 크게 발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철운 조중현의 <강원교육과 제도개신>과 같은 논문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 조계종이 성립되기까지는 신라 고려 때에 여러 종파가 활약하였고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 내부적으로 통불교를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 있었으며 정치적 압력도 작용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통불교가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이 불교전체에 대한 최소한의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불교의 성립으로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일어남 불교의 전래 등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이고 구사 유식을 공부하던 공사상을 공부하던 학계에서 공인된 정통학설을 먼저 배운 다음에 방계의 여러 학설을 참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32년 5월 <불교>95호에 발표된 노악산인의 [강원교육과 제도개신]을 읽기는 지금 보아도 참조하여야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그 위에 아함부 경전과 밀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라면 거기에 맞는 실천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부하여야 할 양이 너무 많이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번역서를 보거나 권위 있는 개론서를 보는 정도로 자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일부 교재의 한글화와 교육제도의 개선 강의방법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定慧社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흑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 슷타니파타 증에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포교요 수행입니다

진화스님 (봉은사 부주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이는 곧 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니라.
나 또한 몸소 병든 사람을 돌보고저 하기 때문이니라.
그대들이여, 나는 천상에서나 인간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베품을 보지 못하였다.
힘든 이를 돌보는 이는 큰 공덕을 얻을 것이고,
명예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감로법을 얻을 것이니라.

〈증일아함경 제5:입도품4:〈2-569하〉〉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대부분의 종교는 자선·인도주의 및 이타적 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출가 수행하는 이들 대부분이 여러 종교 중에 불교에 귀의하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좋아 스스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매일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청정도량안에서 용맹정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한 것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그 깊고 깊은 통찰력에 숙연해집니다.

아마 부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지혜, 자비일 것이며 더 나아가 보시, 보살행, 인간존중, 연기사상 등도 늘 일상에서 접하고 인간세상에서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핵심이겠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자비심은 일체중생에게 안락을 주려는 마음이고, 일체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며 고뇌를 제거한다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실천의 근간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비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데, 출가수행의 목적이 성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인스님들께서 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타로부터 타고난 똑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타가 평등한 인간관계에 입각해 있으며, 부처님은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선언함으로써 계급에 차별은 없으며 누구나 동등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셨습니다.

연기, 그리고 장애인복지

제가 서울 강남의 중심지에 있는 봉은사와 인연지어 소임을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서인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가정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으며, 현대 도시인들은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 치열한 경쟁과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생존경쟁을 펼치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인간성을 서서히 잃고 형식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종 화려함과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가득한 번쩍이는 도시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쌓여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영적인 공허감과 심리적 위안, 그리고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사찰처럼 조용하고 청정한 곳에서 마음과 정신을 쉴 수 있게 재충전을 원하는 대중들이 매우 많음을 보면서 출가수행자로서 중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봉은사 소임을 맡으면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저 또한 처음에는 관장소임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은사에서 이미 맡고 있는 소임만으로도 충분히 바빴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 관장직까지 맡게 될 경우 내가 출가하여 이루고자 했던 수행에 정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출가자인 저를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장을 1년 넘게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삶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각자의 잠재력과 역량이 있으며 모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년 들이 모여 현재의 나의 삶을 만들고 있듯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베풀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개념은 장애는 개인에게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이의 해결도 각자 알아서 하는 개인적 모델이었으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부처님의 연기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 복지사상의 원천이 되는데, 만유제법은 서로 인(因)이 되고 과(果)가 되어 상호불리의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한 가지도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즉, 현상계의 일체제법은 모두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타인의 아픔과 사회적 괴로움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곧 나의 아픔이요,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곧 포교요, 우리 불교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불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된 이래 복지활동은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실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구빈·구황정책, 고려시대 불교의 자비정신에 기반한 각종 창(倉) 제도와 구빈정책·구빈기관의 제도적 확립, 조선시대에는 이런 고려시대의 정책들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근대에 들어서도 불교의 사

회복지활동은 기근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이재민이나 빈민을 구휼하고, 역질이 발생하면 의료구제를 하였으며, 사찰에서 노인이나 아동 및 무의탁 자를 보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은 서구 종교단체들의 구호물품 배급이나 현대적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인해 위축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서구종교들이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등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더욱 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설립되면서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여 현재에는 불교 사회복지 활동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종단에서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제가 머물고 있는 봉은사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을 설립하여 2010년부터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사업을 위해 사찰의 대사회적 활동에 발 벗고 나서서 부처님의 복지사상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출가이유야 어찌되었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불도를 이루기 위해 수행에만 전념 한다는 것은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을 돌보기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위해 고통 받는 중생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출가 수행하는 우리 스님들이야 말로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건 중생을 위해 도움을 주려는 이타적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연기사상을 통해 사회를 공생공업의 장으로 보시고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모든 인간의 평등사상과 사회연대의식에 대해 이미 설하셨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해 전국이 하루 생활권에 들어오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지도가 바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가족해체, 다문화 가정의 증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 장애인의 차별과 사회적 배제, 스트레스와 공해, 각종 질병에 노출된 40대 이상의 돌연사 증가, 실업률 급증, 물질만능주의, 불신의 시대, 양극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등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우리 곁에서 쉼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회 환경 이었다면 부처님께서 모든 수행자가 발 벗고 나서서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설하셨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판과 사판... 현대적 해석의 필요성

조선시대 승유억불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이판승과 사판승을 돌아보면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판승이 불법을 잘 수행하고 있고 사찰 운영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판승은 승려본연의 모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물론 이에 대해 고민하는 학인스님들도 보게 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결과물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공존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먹을 거리조차 없던 조선시대에 사찰의 명맥을 유지하고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 이판과 사판을 구분 지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교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해 조화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인이 나올 만큼 과학기술은 급속히 발달하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 환경 속에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뒤로하

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성직자의 역할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행을 뒷전으로 한다면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중생들을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행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평균학력이 높아지고 수행자와 사찰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재가불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교는 더 이상 유지할 명맥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음에도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여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든 유교의 예에서도 알 수 있기에, 이제 종교는 사회적 역할 없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교가 없다면 불교도 없다

무릇 모든 종교는 그 해당 종교의 홍보, 선전, 신도 모집, 토착화, 정체성 구현 등을 위해 포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포교가 각 종교의 발전, 퇴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중생들에 의한 진리 구현 및 대중교화 차원에서 종교 활동의 중요한 화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불교에도 적용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불교계에서도 포교를 절체절명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포교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불교의 움직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포교원, 포교사회학과, 법사, 포교사, 포교용 교재 발간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는 법사, 포교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전국 각처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불교최초의 포교는 부처님께서 성도 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들에게 사성제를 설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는 포교의 주체인 능화(能化), 비구는 포교의 대상 즉 객체로서의 소화(所化), 사성제를 포교의 내용 즉 교의(教義), 이 교의를 신체, 의지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포교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성불 하신 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런지요?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수행자의 자세

우리 모든 불자들의 서원은 스스로 열심히 실천 수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함과 아울러 주위 모든 이들에게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일깨워 이 세상을 정신적, 도덕적으로 각성된 사회로 만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현일 것이나,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제에서 고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자기 자신의 수행과 사회교화(포교)'로서, 이 두 가지 과제 가운데 어느 것이 나에게 긴요한가 또는 적성에 맞는 일인가에 대한 판단에 의거하여 평생을 선원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도, 포교를 위해 노력하는 스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그 차이를 알고 조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서로 내가 선택한 방식이 옳다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공존해야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여 차별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수행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스스로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고 깨달음을 전파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무슨 차이를 둘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곧 하나인 것입니다.

후배 스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의 수행이 무르익지 않고서 대중들을 교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으며,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이익추구가 아니라 대중들을 위한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중생이 앓고 있으므로 보살도 앓고 있고 중생이 나아야 보살도 나을 것”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참된 인식이란 세상만물이 서로 떨어져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은 나와 한 몸이라는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포교를 하는 스님들도 틈틈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세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무관심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처님 말씀의 참 진리를 세심 깨달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의 크고도 깊은 진리에 놀라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끝없이 자기수행의 과정에 있으며, 스스로 얻는 것만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삶의 길이자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두 용맹정진하시고 성불하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定慧社

한국불교와 내비게이션

진오 스님 (대둔사 주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의장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Issue) 가운데 하나는 이주민 부분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 남편의 저소득 수입구조, 나이차이, 부부갈등의 복합 문제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문화가족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언어폭력, 신체폭력, 방임과 편견으로 피해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가출, 이혼, 자살, 살인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2세 자녀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배려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하거나 4대 보험, 퇴직금은 물론 욕설과 폭행, 산업재해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 현재 불교계의 이주민 지원활동은 이웃종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천주교, 기독교 순위보다 아래다. 불교가 종교

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든 탓으로 그 책임은 종단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2009년 12월 마곡사 전 주지 범용스님은 대전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법희식(法喜食)과 선열식(禪悅食)이 아닌 황금식(黃金食), 뇌물식(賂物食)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종교인인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하였다”며 대가성 금품수수에 따른 징역 10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세연(世緣)을 다한 고인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빌고 남은 후손들의 슬픔을 위로해야 할 종교 의식인 49재와 천도재가 한국불교의 심장인 해인사 1029일 천도재(49재 21회),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의 343일 천도재(49재 7회)에서 논란을 보듯이 재물을 추구하는 상업적 행위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전무(全無)하고 그 잘못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수많은 세월동안 역대 조사스님들이 가꾸고 보존한 사찰 토지 약 36,400㎡(11,000여 평)를 지자체 행사 명목으로 강제 수용되는 것을 묵인하는 해인사의 모습은 교구본사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 관음사는 이전 주지 시절의 의심스런 부채 때문에 사찰토지 9,490㎡(3,000여 평)를 매각한다는 의혹이 종단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꾸짖는 어른스님이 없다. 오히려 복잡한 먹이사슬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더라도 아양승(啞羊僧)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까딱도 안한다. 아양승은 어리석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을 범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승려를 병어리 양에 비유한 말이다.

원로스님이나 큰스님들이 종단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교를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있으며, 종단의 12,000여 승려 중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중진스님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과연 조계종은 청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한국불교 최대종단이 될 자격이 있는가? 종단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도 뻔뻔한 이가 있는 반면 절약과 검소함으로 불사를 이어가는 스님들이 있기는 하다.

만해스님께서 지적한 여섯 가지 방관자 - 혼돈파(混沌派,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무식자), 위아파(爲我派,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명호파(嗚呼派, 탄식하고 통곡만 하는 자), 소매파(笑罵派, 비웃고 욕설하는 자), 포기파(拋棄派, 타인에게 의지만 하는 자), 대시파(待時派, 때를 기다린다고 전혀 일하지 않는 자)-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학인들에게 공부를 제쳐두고 현장에 뛰어들란 주장도 급격한 요구일 수 있다. 다만 학인시절만이라도 사회봉사활동이 지속된다면 구습(舊習)이 변하여 출가자로서 몇몇한 기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송광사가 위치한 주변지역의 종합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정기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교류가 병행되면 사찰과 승가는 지역의 중심공간이 된다.

현장을 모르면 관념에 빠진다.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종교이다. 중생의 애환(哀歡)을 모르고 포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승가공동체는 무엇을 의지해 수행하고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회향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나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에 둔다. 흔히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고 해석하지만 나는 “머리(마음, 정신)로 깨달음을 구함과 동시에 팔다리(몸, 육체)로 중생을

제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불교는 1,600년의 역사와 국보급 문화재 소유를 자랑하지만 군 포교, 병원포교, 장애인포교, 청소년 포교, 대학생법회, 청년불자 법회가 80% 이상 무너진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출가자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비전(Vision)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집단의 수준이 달라진다. 종단의 미래는 구참(舊參) 보다 젊은이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씨앗을 발현해 낼 지원체계는 종단이 먼저 할 일이다. 종단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출가공동체는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착각하지 말자.

한국불교는 시대 흐름과 멀리 떨어진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다. 어쩌면 승단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에 게으른 탓이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모르쇠로 지나왔기에 출가자 감소는 자업자득이다.

한국불교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안내자 역할인 내비게이션은 새로 난 도로뿐만 아니라 지름길과 고속도로를 추천해주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한 도로상황에도 안심하게 목적지 도착을 도와준다.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큰스님께서 시신과 장기기증을 서약하셨다는 기사는 신선하다. 교회활동에 나서는 어른스님 뵙기가 드문 상황에서 몸을 회향한다는 공개적인 약속은 불교가 자기 수행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 좋은 대안이 된다.

한국불교의 내비게이션은 학인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젊은 출가자는 종단이 무엇을 해 줄 것인지 혹은 은사스님이나 교구본사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의타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위기일수록 역사에 자랑스러운 독립군처럼 굳은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와 동떨어진 의식구조를 갖고 어떻게 중생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출가자는 대중 회향을 위해 열정을 받치는 중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한다.

신체적 나이가 낮다고 젊은 수행자가 아니다. 생각과 행동이 건강하고, 스스로 선택한 출가공동체 발전에 디딤돌 의식이 있다면 불교 내비게이션으로써 자격이 있다.

2009년 3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이하 대중결사)가 창립되었다. 조계종 비구, 비구니로서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종단의 공적기관(본사, 말사, 총무원, 법인)에 기증하겠다는 법적 공증과 장기기증, 시신기증 서약으로 회원가입이 시작된다.

“자주 모여 법에 대해 토론하라. 영원히 정법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불교는 고비 고비마다 지혜롭게 발전해 왔다. 이에 본회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근거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수행자의 높은 안목과 자질을 가꾸고, 우리의 중요한 문제와 과제를 공론화하여 개인, 승단, 불교계, 현대사회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한다는 설립목적이 있다.

대중결사는 한국불교의 내비게이션이 출현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종단의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등불 내비게이션이 될 그대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종단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반(道伴)과 움직이길 바란다. 당당한 자세로 주인의식으로 깨어 있다면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이다.

머슴은 시키는 일만 한다. 주인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의 일을 구분하며 희망의 중심인물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로그인(Login)하라. 중생에게 한국불교 변화의 톱핑포인트(Tipping Point)로 법등(法燈)을 밝히는 붓다의 제자임을 증거하라. **定慧社**



불교전문강원의 위상과 역할

- 무엇을 계승하고, 개선하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1995년)

참석자 : 지운/강주, 진경/대교, 정묵/사교, 한복/사집, 설주/사집

사회 : 보원/편집장

좌담일 : 불기 2539년(1995년) 4월 8일



지운스님



보원스님



설주스님



정묵스님



진경스님



한복스님

왜 불교전문강원인가?

● **사회** : 현재 전통 강원 중에서 유일하게 송광사 강원만 불교전문강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지방승가대학교, 각 강원 역시 스스로 승가대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독 송광사만은 작년 6월부터 승가대학이라는 현판을 내리고 '송광사 불교전문강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강주 스님께 그렇게 된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 **강주** : 작년 4월 15일에 법주사에서 전국 강주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구종법회가 성공한 직후여서 우리 강원도 전통 그대로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승가대학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 강원의 전통과 내용에 맞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대학이란 명칭을 쓰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강원생활과 거리가 큼니다. 더 근본적

인 이유는 대학은 학문하고, 교육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승가 공동체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불교 수행법이 계·정·혜 삼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행은 그만두고 학문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대학이라는 명칭이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불교전문강원으로 고치자고 건의를 했지만 제도 개혁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 **정묵** : 저도 강주스님의 의견과 같은데요. 승가에서 강원이란 고유한 이름을 두고 대학을 선호하게 된 데는 승가가 속세보다 못하다는 자괴감 내지는 자기비하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가 승속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승가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질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속을 쫓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강주** :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선우도량에서 토론할 때 깨달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현대사회 그 자체가 고해(苦海)이고, 현대사회의 갖가지 병리현상이 고의 다양한 표출이므로 깨침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원리이고, 고라는 것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인류적인 문제이니까 깨침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의 비교

● **사회** :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왜 불교전문강원이라 써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불교전문강원을 강원, 전통강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신 스님이 두 분 계신데, 이 두 교육기관과 전통강원을 비교해 보는 것도 불교전문 강원의 위상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복** : 제가 보기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승가대는 4년에 걸쳐 약 70여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70여 과목을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넓게 배운다는 의미이겠지요. 거기는 어학부터 해서 불교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논리학, 서양철학 같은 과목이 들어 있거든요. 중앙승가대는 넓게 배운다는 장점이 있고, 강원은 깊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은 글을 한자 한자 새겨 가면서 그 한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파헤쳐가는 방식이니까요.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 **사회** : 수행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한복** : 출가자는 삶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중앙승가대는 아침 예불에 참석하고, 아침 발우공양 하는 것으로 대중들이 함께 하는 시간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루 세번 예불과 공양을 여법하게 함께 한다는 면에서는 비교되는 부분이지요.

○ **설주** : 저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출가했기 때문에 한복스님처럼 스님으로 대학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양쪽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적 성격이 강하고, 위상도 그 안에서 규정된다고 볼 때 중앙승가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과 성격이나 위상이 거의 같고, 불교대학에서 불교를 배운다는 것도 정치학과 학생이 정치학을 배우듯이 불교를 배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개론서를 배우고, 배운다는 것도 일반적인 지식을 교수에게 돈 주고 산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가 도심지에 있고 세속 사회의 논리와 방법론이 도입되다 보니까 불교를 접하더라도 수행적인 측면 보다는 학문적인 측면과 사회적 기능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저와 같은 범주를 넘지 못한다고 보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동국대 불교대학이라는 것이 일반 대학의 성격이 강하고 수행처라기 보다는 세속적인 측면이 강하게 지배를 하니까요. 스님들이 거기에 와서 학문과 지식을 산다고 봐야지요. 속인들과 계속 접하고 살다 보니까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강원엔 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강원엔 산다는 자체가 수행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치문을 배우더라도 그 지식을 받아들여 어디에 써 먹을 이유도 없고,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자신에

게 돌려서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답답할 때도 있는데, 강의나 논쟁을 할 때 보면 강원이 옛날 텍스트를 그대로 쓰는 훈고학적인 전통이 강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기초 교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 **한복** : 개개인의 수행 생활을 보면 중앙 승가대도 천수다라니를 10만 독 한다든지, 관음주를 한다든지, 아침마다 몇 백배씩 절을 하는 스님도 있고, 선원에 있다 온 스님은 계속 화두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과 승가대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식 교육도 받아야 하고 산중에서의 강원과 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정목** : 저는 출가할 때부터 선 수행 보다는 불교학생회 등 불교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를 사회 운동과 연결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승가대에 가고 싶었는데 은사스님이 강원에게 가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강원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강원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형식에 얽매어 어떤 치열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이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겠나 고민해 볼 때 강원교육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망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승가대에 가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심 포교당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포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뼈저림이었습니다. 사회와 일반 신도들이 스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지 말을 잘하고 학력이 좋은 스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과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합일이 안 되더라고요. 신도들을 만나서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지만 제 자신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원에게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반

복되는 생활을 구태의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이 먹어 출가한 초심자에게 속가의 습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강원을 초심자가 수행의 기초를 닦는 곳이라고 봅니다.

강원은 교육기관인가 수행기관인가?

● **사회** : 지금까지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강원은 학문하고 교육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수행하는 곳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의 교육 체계에는 강원을 지방 승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기초 선원과 함께 기본교육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단이나 선우도량 등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교육받는 걸 수행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 **진경** :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불교가 민족문화를 선도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와 근세를 지내면서 불교가 탄압을 받고 침체되면서 오히려 세속을 따라가는 풍조가 생겼다고 봅니다. 언어를 살펴봐도 세속에서 불교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 불교 고유의 언어를 버리고 학인을 학생이라 부르고 강원을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등 세속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승가부터 불교 전통을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시 불교문화를 사회에 확



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을 하려고 했다면 세속 대학원으로 진학했지 출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수행해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지, 무슨 세속적인 알음알이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강원은 어디까지나 수행기관이지 교육기관은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 **설주** : 제가 보기에는 강원을 수행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송광사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강원이나 제방에서는 강원을 경전이나 어록을 배우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강원의 위상도 그만큼 격하되어 어정쩡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이라면 그 위상에 맞는 수행방법과 체계가 잡혀있어야 하는데 간경하고, 강의 듣고, 논강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생활을 살펴볼 때 간경할 때 대충 즐기고, 강의할 때 대강 듣고, 논강할 때 어물어물 넘어가다 보면 세속 대학에서 학문하는 것보다 못하게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강원이 진짜 수행기관이 되려면 선원에 좌선의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경하고, 강의 받고, 논강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으로 돌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수행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 **강주** : 참 굉장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신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강원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려면 강원엔 맞는 수행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불법 자체가 수행을 통해서 깨칠 수 있는 것이지 학문이

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방법은 회광반조 외에는 없는 것이고, 회광반조의 원동력은 다르마 곧 법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고, 조사어록, 논서의 내용도 다 법인데, 법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찻잔을 예로 들자면 고정되어 있고, 형태가 있고, 다른 사물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찻잔은 깨질 성질 즉 무상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이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기존의 사고방식이 깨지게 되어 있는데, 깨달음이란 고정 관념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익히고 조사어록을 공부하는 것으로써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즉 강의를 듣는 것도 수행이고, 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수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행위가 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생사해탈이지, 그 외에 관심을 둔다면 수행자가 아닌 것이고,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생사해탈에 모든 관심을 돌리자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서 보면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된 예가 있고, 조사어록을 보더라도 선지식과 문답을 나누다가 언하에 대오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도 언어를 사용하시고 선사들도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누구도 그 분들이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하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전이나 어록을 자세히 보면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유를 든다든지, 부정적 논법을 사용해서 언어의 한계와 맹점을 극복하고 바로 불립문자의 세계, 즉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은 유동적이고, 지혜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지식위주로 불법을 습득한다고 하면 지혜는 개발되지 않지만, 지혜를 목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수행인 겁니다. 따

라서 지식위주로 공부한다면 강원은 학문하고 교육 받는 곳이지만, 지혜 개발을 위주로 한다면 강원은 수행기관인 것이지요. 따라서 승가에서 '교육이다, 학문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교를 세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말살하는 거예요.

○ **정목** : 저는 속가 때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의 개념은 그 사회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사회 내에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피교육자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장(場)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교육자, 피교육자, 교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속 대학에서 교육의 주체는 교수입니다. 즉, 교수를 중심으로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보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승가의 교육 형태는 출발부터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승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수행자 개개인이 그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에도 강사와 학인, 교과과정이 있으니 형태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교육의 주체 면에서 볼 때 자발적으로 모인 승가이기 때문에 학인이 주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학인들 중에도 강원을 교육기관으로 보게 되는 원인은 자신을 수행의 주체로 보지 않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생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출가하자마자 그릇 씻는 설거지통 앞에 세워 놓더라고요. 아! 내가 속가 때 업이 두터우니까 그것을 씻어 내라고 설거지통 앞에 세워 놓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수행자라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회광반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나를 교육시키는구나 하고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행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 강원을 교육기관이라 하는 말은 있을 수 없겠지요.

○ **진경** : 우리 승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행자 때 신심이 제일 강하고 치문반, 사집반, 경반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강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있지만 수행자로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먼저 학인에게 있겠지만 수행을 이끌어 주는 강사 스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학인들은 대학 출신이 많고, 거의가 고등교육 이상을 마치고 출가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강사 스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루하루를 때우는 식으로 강의하는 강사 스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원이 수행 기관이라면 우리가 보는 어록이나 경전을 보면서 바로바로 지혜 개발이 되어 수행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이끌어 줄 강사 스님이 얼마나 계신지 살펴보면 답답한 현실입니다.

강원과 선원의 관계

● **사회** : 드디어 강사스님 문제가 나와서 지금 강주스님이 긴장하고 계신데 강사 문제라든가 강원 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고, 강원의 위상과 역할 중에서 강원과 선원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강주** : 강원과 선원은 계율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강원이나 선원이나 법으로는 평등한데 단지 강원은 주로 사미로 구성되어 있고, 선원은 주로 비구로 구성되어 있으니 승가 공동체의 계율 상 후배로서 선배를 받들어야 하는 것이지, 수행적인 차원에서 선원은 차원이 높고 강원은 낮다, 그건 아니에요. 법은 평등한 것이니까. 사미든 비구든 법을 듣고 마음이 돈발하면 누구나 깨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과 수행에서는 동등한 것이고 계율에서는 동등하지 않는 것이지요.

● **사회** : 다음으로 강원에서 시급해 개선되어야 할 점 중에서 강사문제, 커리큘럼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먼저 강사문제인데요, 강사 스님

이나, 학인이나 모두 공감하는 것이 강사가 수적으로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정목 : 조계종의 종지 자체가 선종에 있고 마치 선을 해야 깨칠 수 있고 교를 하면 깨칠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해서 지나치게 선을 숭상하고 교를 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은 선원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고, 강사 스님에 대한 예우도 약하니까 대강백 스님들도 강원에 남아 계시지 않고 주지를 하신다든가 해서 다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하루 빨리 교학을 천시하고 교를 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고정관념이 깨져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사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 한복 :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강사 스님에 대한 처우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강주스님이 지금 서점에 100만 원 이상의 외상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사 스님의 월보시가 35만원입니다. 어지간한 사전류가 100만원을 넘어서고 컴퓨터 한 대가 300백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월 35만원으로 어떻게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종단에서 강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 하면, 90~94년까지 종단에서 교육비로 지출된 예산이 전체 예산중 13.6%, 그 중 지방승가대, 즉 강원에 지출된 것이 0.69%입니다. 작년에 강원에 집행된 액수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송광사 강원에 온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종단에서 강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지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 정목 :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강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교육원은 독립되었지만 현재 강원은 사중의 보조역할하는 부속기관에 지나지 않고 주지스님이 학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주지스님에 의해 좌지

우지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강원이 교육원 체제 속에 편성되어서 교육기관으로든 수행기관이든 위상이 정립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 :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강사를 배출하는 제도나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울원이 있기는 하지만 과정부터가 1년이고 강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책을 보다 지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보시지요.

○ 강주 : 그것은 불교전문강원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해방 전만해도 강원과정이 10년이었고 대교과 위에 수의과 과정이 있어서 수의과는 자동적으로 중강을 맡아서 아랫반을 지도하다 보니까 강사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4년 과정을 늘려서 2년 정도로 수의과를 설치한다면 강사문제는 상당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우리 송광사부터 주지스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사회 : 비구 강원을 살펴보면 학인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강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육원에서 강원의 통폐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기준을 빨리 정해서 미달하는 곳은 과감히 통폐합시키는 것이 강사문제 뿐만 아니라 승가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커리큘럼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데 현재 송광사의 커리큘럼을 보면 정규과목, 보설과목 합쳐서 30과목이 넘고 과목의 면면을 살펴보다도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규과목을 다 배우기도 벅찬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강사 문제와 겹치기 때문에 그만 두기로 하더라도 그 밖에도 커리큘럼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스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정목** :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강원에 와서 처음 불교를 배우게 되는데, 초심자에게 치문이 어렵기도 하지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문반 때는 불교학개론과 아함경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한 개념을 갖춘 상태에서 선어록을 배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경** : 개인적인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이 전부 한문원전으로 되어있다 보니 한문 실력이 짧은 저로서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강원을 그만두고 선원으로 가시는 스님들 중에 신심이 돈발해서 선원으로 가는, 진정한 의미의 사교입선 보다는 한문의 벽 때문에 경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가는 스님도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과목 중 가장 어렵다는 치문을 보기 전에 한문을 익힐 수 있는 교재를 커리큘럼에 넣어서 먼저 배우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실력이 모자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스님들도 때가 되면 무조건 윗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거나 강사 스님이 판단해서 도저히 어렵겠다 싶은 스님은 유급이라도

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급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복** : 강원에 오면 치문부터 배우게 되는데 중국말인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순전히 중국 선사들이 쓴 중국적인 내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불교에 그런 수준의 글이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불교전서를 보면 좋은 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단에 교재편찬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으니까 종단 차원에서 교재의 한국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 : 이 외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좌담을 시작한 지가 벌써 3시간이 지났고 하니,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주스님께 제방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좌담을 마칠까 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강주** : 우리는 학문을 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수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강원을 대학이라 하고, 학인을 학생이라 하는 것은 본분사를 저버린 세속적 시각이지 불조의 혜명을 이으려는 수행자의 관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 학인스님들은 한국 선종을 떠받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방불교를 이해하려면 빨리어를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방불교를 이해하려면 한문 경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대장경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한문 원전을 강독하는 곳은 전통강원밖에 없습니다. 조계종의 종지인 선종과 선종의 골수인 간화선의 수행체계와 방법이 강원에서 배우는 경전과 어록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인들은 선종의 골수를 잇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가 여러분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定慧社

scene #01. 하안거. 지대방. 이야기

어느 토요일 새벽 수암 스님 | 치문



8월 22일 토요일 새벽 2시 20분. 뚜, 뚜, 뚜~, 지이잉~ 알람 소리가 요란하다. 오늘부터 새벽 도량석을 맡게 되어 지대방에서 혼자서 취침했다. 습의 사항을 한 번 상기한 뒤 일과의 시작이다. 정혜사는 고요한데 홀로 법당을 향했다. 나쁘지 않다. 부처님 뵙고 목탁 메고 이제 도량석이다. 무엇에 얽매었던가! 아직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도량석이 끝이 났구나.

도량석 후 오늘은 종고루 직행이다. 두 번째 순서로 법고를 치게 되었다. 더도 말고 연습한 것처럼만 칠 것을 스스로 타일렀건만, 흑흑흑, 법고에 붙잡혀 버렸구나. 다음은 범종을 칠 차례, 나쁘진 않았지만 제 자리걸음이로구나! 무얼 바랬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었는가? 자괴감 속에 상급반 스님들이 목어와 운판 치는 것을 조용히 들으며 스스로 다독여본다. 예불 시간이다. 어제 단체참회, 그리고 도량석, 이런 저런 까닭에 3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 졸면서 팔정례 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그 외중에도 스스로 목소리가 트이지 않았음을 탓하고 새벽간경에 임했건만 아직 몸에 열이 오르지 않았는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아침 공양을 경건히 끝내고 이제는 상강례 대기시간이다. 마의 상강례 대기 시간. 오늘도 정신 차릴 것을 다짐하지만 이진 뭐 중독성인지... 비몽사몽간에 대기 시간이 끝나고, 정신 번쩍 들어 우렁차게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해가 밝았음인가, 열이 올랐음인가! 깊고 지루했던 꿈속에서 깨어나 이제야 한걸음이로구나. 定慧社

출가 일현 스님 | 치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간절함이 사라지고 난 후 걸음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고 있었던 거 같다. 뭐 하다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은 내 자신에게 던졌을 때 답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과연 전부인가? 조급했던 것일까? 학교를 휴학하고 사회 경험하면서 돈을 모아 봐야겠다는 생각에 2년 동안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을 하고 변화가 일어났다.

통장의 돈과 가식적으로 변한 내 모습과 그 안에 있는 이기심이었다. 내면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나는 군대로 갔다. 병장 휴가를 나와서 웬지 모를 날카로우면서 생각이 없어 보이는 스

님을 만났고 나는 그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스님은 몇 살이죠?” 스님이 말하기를, “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스님에게 나는 또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꼬달리고 밖에 꼬달리다가 죽는 게 전부입니까?”

스님이 말하길, “너 몇 살이냐?” “24살입니다.”

“연애는 해 봤냐?” “안 해 봤습니다.”

“너 출가할래?” “네, 출가하겠습니다.”

“너 스님 되면 노후보장이 안 되는 건 알지?”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스님에게 말하였다.

“스님 두려움이 일어나는데요?” “너 공부 잘 하겠다. 출가해라.”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하길,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니가 있다. 공부는 그렇게 지어 나가는 거다. 크게 생각해라.” 전역 후 나는 출가했고, 스님의 소개로 지금 은사스님과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난 지금 송광사에 있다. 그러나 앞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定慧社



출가 진상 스님 | 치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과거 당시에는 각각 따로 떨어져 보이던 것들이 돌이켜 보니,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서로 엮이고 엮여서 지금의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2006년 5월에 접어들 무렵 나는 다소 들뜬 기분으로 살고 있었다. 어쩌면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었는데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4년이 넘는 병역특례의 시슬을 풀어버리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마치 새장속의 새가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가 하늘로 오르듯이 그렇게 나는 다니던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비록 그 새가 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지언정 어떻게든 자유를 찾아가고 싶었다. 사직서를 내겠다고 팀장을 찾아갔더니 왜 그만두려 하느냐, 다른 데로 옮기려 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하셨다. 난 그냥 이런저런 설명이 귀찮아서 짧게 끝낼 수 있는 답변을 생각해 냈다. “저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지루한 대화에 종지부를 찍은 듯 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팀장 자신도 그러고 싶다고, 자신의 나이가 나만큼 되면 자신도 그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때, 팀장의 PC모니터 하단의 포스트잇에 큼지막하게 적힌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 심]. 불교에 문외한이던 당시 나로서는 그게 불교용어인줄도 몰랐다. 물론 출가하고 나서 행자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여튼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을 낮추라는 좋은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동료들을 뒤로하고 무작정 떠나게 되었다. 항상 짜여진 스케줄대로만 살아오던 나로서는 일종의 궤도 이탈이자 방향의 시작점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 같다.

두 번째. 백수의 여유를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 테이프 하나 선물 받게 된다. 법문



이라 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기던 나로서는 듣지도 않고 한참을 방치해 두고 있다가 또 다시 우연히 그 테이프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뜻 밖에도 법문이 재미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테이프 10개짜리 금강경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금강경 책도 사서 읽고 불교 서적들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법문 마지막의 축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 들은 공덕으로 발심 출가하여”로 시작이 되는 데, 왜 금강경을 들었다고 출가하라는 것인가 말이다! 여튼, 잠 잘 때도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던 그 때,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분 믿으려면 출가도 할 만 하겠다. 만일 내가 출가하게 된다면, 저 분 믿으로 하지 다른 어떤 분 믿으로도 출가하지는 않겠노라’

세 번째. 불교를 접하며 많이 들은 말 중의 하나가 ‘인연’ 이었다. 그래서 2006년 어느 날 무작정 그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가기로 했다. 만일 그분을 만나면 내가 출가할 인연이고 못 만나면 인연이 아니리라’ 는 생각을 하고서 말이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나는 다시 일 년 정도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 2008년 나는 다시 직장을 떠나서 두 번째로 백수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쩌다가 그 스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스님을 뵈고 좋은 말씀 좀 듣고 오겠다고 집에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었다. 물론 그 날 이후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나 하고 기대하며 갔는데, 뜻밖에도 내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셨다. “그래,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서 불쑥 생각해낸 말이 “어떤 사람이 출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출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출가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너는 출가하는 게 낫겠다. 출가해라.”

그로부터 보름정도 절에 머물며 기도를 한 후에 출가하게 되었다. 물론 그 스님은 바로 지금 나의 은사스님이시다. 법문을 듣고 세운 나의 원력 때문인지 은사스님의 법문 축원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것이 나의 출가 동기이자 또한 내가 살아온 궤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우주를 떠돌던 헬리혜성이 우연히 태양 옆을 지나다가 중력에 포섭되어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듯이, 은사스님의 이끔으로 불법문중 궤도에 들었으니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

물론 혜성의 궤도가 태양에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듯이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항상 마음을 다잡아본다. 定慧社

무제 시경스님 | 치문

고민이다. 글을 써 보라고 하는데 남한테 보여줘 본 글씨를 쓴 게 언젠가? 참 오래전 인 것 같다. 일기를 쓴다고 마음먹고 잘 쓰지도 않았고 글 써 본지가 참으로 한참 된 것 같은데... 곱은론

스님 옷을 입고 생각은 속인처럼 살아가는 무리들 속에서 나도 그 한 무리인 듯싶다. 스님 생활이 어떠한가. 그것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겠지만 보이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은 참 잘 못 한다. 그래서 늘 참회를 자진해서 또는 다른 스님에 의해서 가게 된다. 그런데 참회를 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참회나 자참이나 또는 다른 경책이 내려지는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대중생활에 있어 화합하고 내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낮추고 봉사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한데 그것이 다들 잘 안 되고 나 또한 그러한 것 같다. 그래서 단체 생활이 힘들고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서로 서로 많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여기 현재 왜 모여 있는가. 왜 내가 이 일을 또는 이 공부를 이 상황을 맞이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결론이 났다면 빨리 행동에 옮겨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중이 짜증이나고 짜증을 내고 화합이 좀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산다는 것은 판단과 실행이 잘 진행되고 여러 스님이나 또는 속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족, 여러 동료, 여러 이웃 등등이 좀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 시경은 송광사에서 출가해서 광주 말사에서 6개월 살고 이곳 송광사 하안거까지 마치게 되었지만 그렇게 썩 잘 살아온 것 같지 않다.

도반 스님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것은 배워하질 못한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렇고 항상 위태위태하게 강원 생활을 지금까지 해 온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이 글을 쓴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결코 어떤 틀에 얽매어 있는 규격화된 멋진 모양새만은 결코 아니라고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공부하고 수행이라는 거창한 말로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앞으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경전공부나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해 나가야 하리라. 마음속에 담아 놓은 것을 다 풀어 버릴 수도 없고 어쩔 땐 답답해할 때도 많다. 그냥저냥 속에 담아놓지 않고 생활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냥 잘 안 꺼내 놓다가 가끔 이성을 잃고 욱하고 올라올 때가 많다. 그래도 예전 출가하기 전보다는 덜하다. 확실히 스님이 되고 나서 많이 성질이 가라앉았다. 우리 수행 중에 가장 기본이 삼독심을 끊는 것일진대 여러 도반 스님들이여 제발 권하노니 성질 좀 죽이고 삼시다. 누구 성질부릴 줄 몰라서 안 부릅니까. 다 참고 삼시다. 참는 자가 진정한 승자요. 구도자의 길일 것입니다. **定慧社**

병고 수용 스님 | 치문

출가 전 몸이 아파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다는 것 다 해 봤지만 고치지를 못 했다. 약 부작용으로 5년간 병어리가 되어 버리기도 했고, 남는 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뿐. 무속인들에게는 한결같이 40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숫하게 들었다. 우리 가족들과 나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그리 두렵게 느끼질 못할 때가 많았다.

자살 또한 여러 번 실패로 끝났고, 큰누나는 동생하나 살리겠다고 14년 동안 나의 손발이 되어 주었다. 고생 끝에 소문을 듣고 무조건 절로 끌고 온 큰누나가 나에게서는 소중한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절에 와서 3일 만에 부처님의 가피로 고통이 반으로 준 것이다. 정말 믿기지 않은 신

기한 일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기도 중 머리에서 엄청난 힘이 허리까지 관통하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기억력이 되살아 난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든 나 혼자 착각으로 고치던 여러 번 가피를 입은 것만은 틀림없다. 속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절에서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얼마 후 송광사에 와서 뜻밖에 남들 먹는 보약을 나도 지어 먹었더니 거기에서 맞는 약을 찾은 것이다. 13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약을 찾은 기쁨과 고마움은 표현할 수가 없다. 출가하기 전 절에 소개해 주시던 스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떠오른다. 속가에서 10년 걸려 고칠 거를 3, 4년 만에 고칠 거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부처님께 감사하고 스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 때 그 분 스님께 찾아가보고 싶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주는 스님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물론 과학과 의술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법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나보다 많은 체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定慧社**

한 여름, 미꾸라지 원산 스님 | 치문

작년 여름의 일이었다. TV에서는 연일 저수지며 댐이 말라가서 걱정이라는 얘기뿐이었다. 그 날도 무척 더웠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노스님과 나, 둘이서 산책을 하는데, 노스님이 갑자기 우뚝 서시더니 한 쪽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다. 나도 급작스런 멈춤에 놀라, 그 쪽을 바라보니, 계곡물이 말라 곳곳에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는데, 유독 한 곳에 세숫대야 한 개 정도의 진흙물에 각종 미꾸라지들과 메기 새끼들 지렁이들 수십 마리가 살겠다고 마구 뒤엉켜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원래 가뭄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노스님께 가자고 얘기를 하려는데, 노스님이 “채네들을 구해주자.” 라고 하셨다.

그 순간 표현은 못 했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었다.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자란 나는 무수한 동물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또 매일같이 그 고기들을 사고파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지 생활일 뿐 안타까운 대상은 아니었다. 특히 우리 옆집은 미꾸라지 도매상이었는데 드럼통 몇 십 개에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산채로 절여지거나 산 채로 다른 곳으로 실려 가는 것을 무수히 보았다. 그 과정에서 미꾸라지 수십 마리가 튕겨 나와 바닥에서 말라 죽거나 밟혀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저 계곡 아래 물웅덩이에 있는 미꾸라지나 민물고기 새끼들은 아무리 많이 쳐 주어도 3,000원을 넘길 수가 없었다. 잔인한 말로 어죽 한 그릇 분량이었다. 그런데 난 그것을 구하겠다고, 저 아래 진흙탕에 가야 하다니... 노스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웠다. 그 때 갑자기 노스님께서 “뭐하니, 내가 몸만 좀 더 성해도, 벌써 뛰어가서 구해주었겠다.” 그 때 노스님께서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계단도 잘 못 내려 가셨었다. 나는 근처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손잡이가 깨진 바가지 하나를 주워서 계곡 밑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니, 사방에 여러 물고기 말라 죽은 시체들과 지렁이들이 진흙 속에서 꿈틀거리고, 각종 비린내와 하수

구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가지로 바닥을 긁어 민물고기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놈들이 자기를 구해주려는 것도 모르고, 자갈 사이사이로 도망쳐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바로 위에서 호통이 들렸다. “원산아! 고기들 바가지로 괴롭히지 말고, 손으로 잡아서 저기 옆에 연못으로 옮겨라.”

다시 기어 올라와 고무장갑과 비닐봉지를 들고, 잡으려 했지만 결국 못하고 맨 손으로 잡기 시작했다. 속이 보이지 않는 진흙 속을 맨손으로 뒤적거리며, 살아 꿈틀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중생들을 손으로 잡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저울 위의 한 봉지 미꾸라지들과 그 앞에 가격표 3,000원, 그리고 작업 이후 빨아야 할 옷가지며 고무신이며 내가 빨래하는 모습들이 번갈아 비추어지고, 그러면서도 손은 분주히 물고기들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있던 한 바가지와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하나 가득 채우고서야 일이 끝났다. 나는 주섬주섬 바가지와 봉지를 챙기고 어그적 어그적 계곡을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가뭍에 반쯤 말라버린 옆 연못에 개네들을 놓아주었다.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 매미는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나는 온 몸이 땀범벅이고 바지와 신발은 진흙투성이였다. 노스님께 합장하고 뒤 돌아서 수각장으로 가려는데, 노스님이 말씀하셨다.



“원산아. 넌 오늘 참 좋은 일을 한 거야.” 갑자기 내가 불멘소리로 대답했다.

“근데요 스님! 재네들 시장가서 사면 3,000원도 안 되는 애들이예요. 그다지 가치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호통. “이 녀석아. 생명은 돈 가치로 표현 되는 게 아니야.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야.” 그래도 난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시장가서 만원어치 미꾸라지 사서 물 좋은데 방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만 맴돌았다. 며칠 후 은사스님 차를 타고 암자에 가다가 내가 급작스레 소리 질러 차를 세웠다. 은사스님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셨고, 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저 초록뱀 한 마리가 차 바로 앞을 지나가서요... 지금은 가셔도 되요.” 정말 순간적이었고, 저 작은 짐승이 죽으면 어쩌나 하는 당황스러움이 거의 본능처럼 다가왔다. 잠깐 사이에 그 작은 동물에 대한 걱정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우게 되었고, 마치 내 친척처럼 걱정했다.

아... 노스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바로 이거구나. 밖에서 들었던, 무수한 법문과 무수히 읽었던 책들 속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마음을 나는 사소한 작은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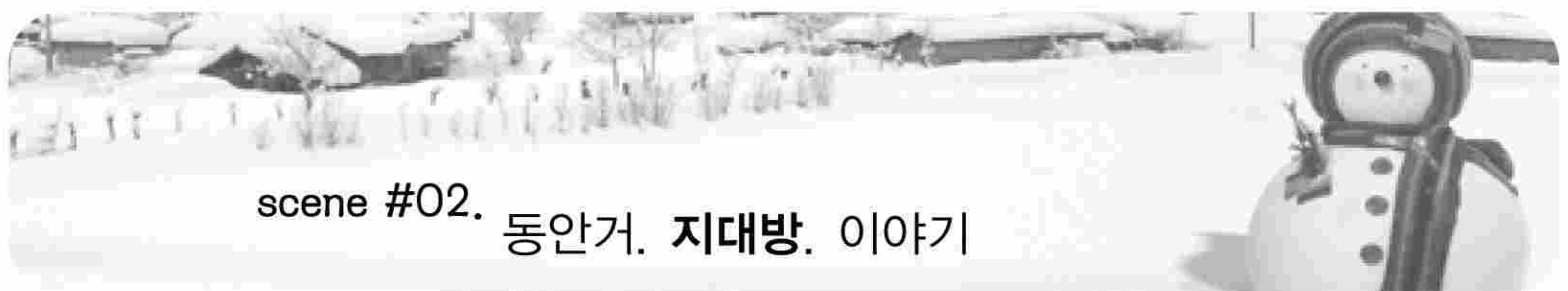
며칠 후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작은 수술을 받고, 내 방에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다. 밖을 내다보니 다 말라버린 연못 옆에 노스님이 서 계시고, 진흙 뺀이 되어버린 연못에 은사스님이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잡고 있었다. 아예 커다란 다라이 통을 옆에다 두고,

무릎까지 진흙에 빠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땀범벅이 되어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셨다. 그런데도 짜증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 보였다. 저녁 때, 은사스님이 하나 가득 잡은 물고기들을 보여주시며, 나에게 미소 지으시며 하시는 말씀. “좋은데 방생할꺼야.” 올라오는 따뜻한 감동, 그리고 한숨... “휴. 난 앞으로 배울게 너무 많아.” 定慧社

치문반 도반들 진허 스님 | 치문

하안거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치문반으로 강원 생활의 절반 반환점에 와 있다. 하안거 반철이 지나야 정식 강원 학인이라는 소리가 엇그제인데 아직까지도 미흡하지만 습의가 끝나고 그 무덤다는 송광사의 여름은 지나가고 있다. 개성 강한 스님들이 서로 참아가며 살아가는 치문반 도반 스님들이 고맙다. 봄 산철과 하안거 반철까지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들 열심히 참고 생활하면서 서로가 익숙하지 못한 채로 만나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서일까. 때로는 어수선하고 때로는 뼈격거리면서도 용케도 잘들 해나가고 있다.

조금은 산만하고 다른 도반 스님들보다 조금은 느리지만 열심히 사는 스님도 있고, 수많은 경책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가는 스님도 있고, 너무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스님, 그저 소리 없이 대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사는 스님까지 다양한 도반 스님들 모습에서 나의 잣대는 쓸모없는 것일 것이다. 항상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허망한 분별심에서 시작되는 잣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니까. 그저 묵묵히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의 스님이 나에게 필요할 것 같다. 한 생각 내려놓는다는 말과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데... 우리 치문반 도반 스님들이 모두 다 강원 생활에 잘 적응해서 맑고 밝은 모습의 멋있는 송광사 학인 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중 생활에 불참이 많았는데 내 뭇까지 해 준 도반 스님들께 미안하고 고맙다. 너무도 잘 사는 치문반 스님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定慧社



scene #02. 동안거. 지대방. 이야기

작은 감동 동도 스님 | 치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가끔은 감동으로 다가서기도 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메말라가는 정서 때문일 것이다. 작년 3월불사 때였다. 사시공양 시간의 후원은 많은 신도분들로 무척 붐볐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굵은 상체의 무게 중심을 지팡이 하나에 둔 채 기다랗게 늘어선 줄을 헤집고 후원 계단을 향해 서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반대편 끝자락엔 역시 남루한 옷차림의 60대 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할머니를 향해 되돌아오라는 어색한 손짓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식탁에 앉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할머니와 두 개의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서 있는 방금 전의 그 허름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보였다. 그들은 모자지간임을 분명히 보였다. 아들은 병들고 지친 어머니를 위해 절의 큰 행사에 맞추어 봄나들이를 준비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너무 대조적인 자신들의 초라한 형색에 무척 당황스러워 했고, 어머니가 사람들의 틈에 섞여드는 것이 민망스러웠을 것이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되돌아오라고 손짓을 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들에겐 무척 큰 행복이었을 것이다. 이 흔하고 일상적일 수 있는 일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定慧社

새벽 금강경 독송 진상스님 | 치문

송광사 강원 치문반이라면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몇 가지 중에 으뜸은 새벽의 금강경 독송이 아닐까 한다. 공양시간 전이라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졸린 눈을 부릅뜨고 무릎을 꿇은 채로 경책을 눈높이로 들고서 힘껏 소리를 내야한다. 물론 소리만 커서 되는 건 아니다. 혹 운곡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새벽 간경시 대웅전 부전스님의 한 말씀을 꼼짝없이 들어야한다. 속가에서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의 고생에 비할 바야 못 되는 것이겠지만 내 손톱 밑의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 아니겠는가.

고속도로에서 내달리는 자동차 부럽지 않은 속도로 독송을 하는 터라 의미까지 곱씹으며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유독 매번 눈에 번쩍 띄는 문구가 있으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경전을 해석하고 의미를 곱씹으려 하는 건 아니다. 위의 문구를 접하면 항상 엉뚱한 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번뇌 망상이란 이렇다. '과거는 아름답고, 현재는 고통스러우며, 미래는 암담하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아웃포커싱된 렌즈의 피사체마냥 현재라는 초점에서 과거로 멀어질수록 일명 '뽕샐'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름답게 회상이 되지 않나 싶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현재가 고통인 이유라면 굳이 멀리 가서 찾지 않더라도 지금의 치문반 생활을 하는 스님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미래란 눈앞에 놓인 킁킁한 숲길과 같으니 미지의 앞길은 암담하다 하면 지나친 표현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보다. 생각의 고삐가 풀리면 후다닥 뽕샐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달음박질 칠 때가 많은 걸 보니 말이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했던가. 처음 발심했던 때의 기억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그 때

가 가장 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일 많이 뽀샵이 되어버린 탓일까. 이유야 어찌 되었건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

출가하기 전에 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의 은사스님께서는 당시에 108염주를 하나 건네주시고 하루 천배씩 21일간 절을 해 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절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어 며칠이 지나고 있었다. 하루는 행자님이 밤에 찾아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행자생활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행자님들이 그냥 스님이 되기 전에 대기하며 절에서 생활하는 분들인 줄로만 알았었다. 옷 색깔만 달랐지 별로 다를 게 없는 줄만 알았지 무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름정도 있다가 출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자실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무언가 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알람소리에 단잠을 깬과 동시에 나의 많은 고정관념들도 깨어버려야 함을 알게 되기 시작했다. 유유자적하는 출가자의 모습은 안 보이고 초 단위로 짜여진 시간표대로 로봇마냥 뛰어다녀야 했고, '등근 해가 떴습니다.' 로 시작하는 노래에서 가르쳐 준 것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옷을 입고 예불 준비하고, 도량석 돌고, 사물치고, 예불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공양 준비하고..등등. 그리고 한 숨 돌리기 무섭게 사시예불 준비, 공양 준비하고.. 속가의 삶이 다람쥐 쳃바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절집이 더 잘 짜여진 근사한 쳃바퀴 같다는 푸념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찌하랴. 그건 그 때의 일이고 지금은 그 날을 추억하며 흐뭇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면 지금의 윗반 스님들은 지금의 치문반들을 보며 마찬가지로의 흐뭇한 미소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定慧社

나의 縉門을 생각하며... 시경 스님 | 치문

2009. 송광사 강원에 입방하여 어언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작년 나는 계를 받고 말사에 있다가 올해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스님인지 또 제대로 학인승으로써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항상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은 앞서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몸이 고단하고 잘 따라주지도 않고 자주 잊어먹고 하면서 다른 도반이나 대중 스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이 이런 저런 말을 듣다보면 또한 서운하기 그지없다. 하루라도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은 때가 현재까진 없었던 것 같다. 출가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내 몸을 부처님께 바친다고 해 놓고서는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되는 게 내 현실이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잘 안 익혀지는 게 너무 많다보니 나와 특별히 인연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면목이 없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뿐이다. 나의 縉門을 생각하면 대충 이렇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온다. 봄 산철 때는 수두소임을 보면서 허리를 다쳐 고생했고, 하안거 때는 화엄전 시자에 간병을 하면서 참회도 많이 갔다. 탐전 시자도 임시로 해서 굉장히 바빴는데 이상하게 참회도 많이 가고, 고생한 보람 없이 도반들한테는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너

무 힘들었다. 가을 산철에는 큰방에 들어와서 소임을 봤는데 사실 다른 도반스님들이 많이 도와 줘서 그런지 별 문제 없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이제는 동안거다. 이제 겨우 1/4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해매는 것 같다. 가을 산철에 했던 큰방 소임인데도 멤버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은 어수선하고 다들 익숙하지 않아서 호흡이 착착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잘 되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여태 살아오면서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생활한 게 처음인 듯싶다. 항상 자유롭게 살며 직장생활도 하고, 큰 회사에서는 오래 다니지를 않았고, 군대도 몸이 안 좋은 곳이 있어 5급 판정을 받았으며, 거의 소규모 회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인지 여럿이 이렇게 생활하며 내 자신을 길들여 가기는 처음이라 잘 안 맞는 점이 많은 게 지금 내 현실이다. 도반하고 관계도 그렇다.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저 스님은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 내가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가야하는 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된다. 앞으로는 잘 될까? 사실 걱정이다.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에는 온통 망상이 꼬리를 치고 나를 방해하며 그저 나를 멍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금도 뭘 쓰는지 모르겠다. 속인으로 살면서 복을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글썄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힘이 든다. 그래서 참 괴롭다. 기도를 하며 지내려고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뭐가 보이겠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어쨌든 감사할 따름이다. 나무 반야바라밀. 定慧社

강원 시덕 스님 | 치문

행자 생활하면서 속으로 열심히 해야지 하며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치문반 하안거 중순에 끝~. 학교처럼 한문공부 난자 찾기와 눈치 보며 살기. 언제 나를 찾고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내 마음이 그리고 도반들이 이젠 그냥 생활로서 살아가는 듯하다. 도반들의 이야기는 몇 명을 제외하고 책(환상&선방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꿈같은 이야기만 한다.

내가 느낀 스님의 생활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반이 과연... 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봐도 몇 명은 출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밖의 생활이 힘들고 적응 못해서 들어온 도반 보니 내가 더 화가 난다. 자신? 깨어있고 깨어보겠다고 온 사람은 없고 지금의 나로 그냥 가는 시간 따라 1년을 보내면서 중입네(중을 비하하는 뜻으로 생각함) 하고 있다. 스님이 수행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새 나 자신도 중이 되어간다. 무슨 목표를... 생각도 없이 떠밀려 드는 막장으로 선택한 길 같이 보인다. 나 자신도 살기위해 왔건만 여기 오면 찾을 것 같아서 막연한 무언가를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진 못해도 1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 저런 배움으로 흥내는 낸다. 중이라고. 생활이 지루해져만 가고 내 자신이 나태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무엇일까? 치열하게 처절하게 앉아서 갈구하는 것을. 천천히 볼 것이다. 중물이 무엇이고 중이 무엇인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스님들을 보고 싶다. 定慧社

동안거 수용 스님 | 치문

치문반 때 한자공부를 못하면 후회할거라는 윗반 스님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너무 안한 것 같아서 좀 짠하다. 난 무엇을 얻었을까. 대중생활을 배운다지만 너무 빠싹 날들. 시간에 틈이 없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 송광사 기운이 내려준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쉬는 시간이면 지대방에서 누워 있는 도반들과 따끈한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는 날이 전부다. 지나간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진다. 定慧社

송광사 치문반의 하루 일각 스님 | 치문

새벽 3시. “또또또또또또뚝~뚝~뚝~ 또또또또또또르르르르...” 도량석 목탁소리가 큰방대 중을 깨운 뒤 찰중스님의 죽비 삼타에 불이 켜지고 강원외의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 치문반은 재빨리 일어나 문 열어 걸고 가슴기 치우고 죽비 옮기고 달려 찢고 이불개고 간경 좌복 갖다 놓기 등 모든 일들을 기상과 동시에 5분 안에 하고 행전 차고 적삼 입고 큰방에서 나가야 한다. 이와는 달리 느적느적 여유 있는 사교반 스님들과 그래도 덜 바쁜 사집반 스님들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기상나팔과 동시 점호장 맨 첫째 줄엔 반드시 이등병 막내들이 제일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불과 2년 전 전군을 휘하에 거느리던 말년 병장이었던 때를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온다.

간단히 이 닦고 불일 보고 약사전 앞에 모여 안행을 한다. 대웅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리보다 먼저 들어와 절하고 있는 행자님들이 보인다. 그래도 저들보단 낮지 않은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 보고 괜히 잘 깔려 있는 좌복을 새로 만지작거리며 행자반장님을 불러 뭐라 지시하는 도반스님들도 있다. 그들은 수계 후 장차 어느 자대로 배치 받을지 미지수인 훈령병들과도 같다. 괜히 뭐하나 더 사주고 싶다. 좌복도 우리보다 작은 거라 절할 때 좌복 밖에서 한다. 발 시릴 텐데... 눈물이 내려한다. 아참 난 이등병이지! 하고 현실로 돌아와 절을 하기 시작한다.

요즘 절 늦게 한다고 사집반 웃반 스님들께서 관심을 쏟고 계신데 빨리해야지. 그래도 코 박고 안 일어나는 도반스님을 보면 ‘저사람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마구 든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라는 청구의 한 구절도 무용지물이다. 한편 이때 종고루에선 필자를 포함한(?) 그나마 법고 좀 치는 치문반 스님들 3명이 스타트할 준비를 한다.

“타타타타탕탕탕! 탕! 탕! 탕탕! 탕! 두구두구두구두구...” 힘차고 경쾌하게 법고 스타트를 하고 번갈아가며 자신의 스타일대로 돌아가며 친다. 동안거인데 아직도 목어랑 법고 마무리가 안 된다며 웃반으로부터 결과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못 치는 도반 스님들을 보면 참 저것도 재능이 있어야지 안 되긴 진짜 안 되네 하고 내 실력을 좀 주고 싶은 생각도 든다.

훈한의 종고루 멤버들이 사물을 마치고 대웅전에 합류하면 장엄한 송광사 새벽예불이 시작된다. “지~심~귀명~례~” 음곡이 잘 맞을 때면 정말 신심내서 열심히 하게 된다. 어그러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오늘 하루는 참 힘들겠구나.’ 하며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집반 스님의 발원문과 반야심경이 끝나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금강경!! 부진했던 팔정례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

“개경계...” 정신 차리고 음곡을 맞춰본다. 신중단 조사단이 현저히 차이난다. 그래도 계속 간다. 반대편 신중단으로 가서 얘기해 주고 싶다. 음곡이 안 맞는다고. 세상일 참 마음대로 안 된다. 예불 끝나고 누가 어그러뜨렸네 하고 아옹다옹 정답게 얘기할 때 오늘은 내 목소리가 너무 튀었다. 이럴 때면 나나 잘해야지. 남 탓하지 말고 하는 생각이 든다. 금강경이 끝나면 이어지는 108배. 찰중스님이 죽비를 빨리 칠 때면 속으로 ‘화나셨나보다, 금강경 습의 하겠네’ 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럴 때면 이것은 절이 아니다. 옆어졌다 일어나기지.

오늘따라 장삼 뒷자락이 왜 이리도 밟히는지. 여름에는 땀범벅이 된다. 무사히(?) 새벽예불을 마치고 소리 간경을 하러 큰방에 들어간다. 4시 50분. 이때가 필자에겐 가장 힘든 시간인데 얼마나 졸리는지 모른다. 그나마 발원문까진 목소리도 크게 잘 했는데 이어지는 개인 소리간경 땀 정말 비몽사몽이다. 위산경책을 주로 하는데 했던 데를 까먹어 몇 번이나 새로 시작하는지 모른다. 옆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업계수신”만 몇 번째다.

5시 15분. 이렇게 약 30분간의 소리간경이 끝나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몇몇 소임자들을 제외하곤 지대방에서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보약이다.

5시 35분. 달콤한 휴식도 끝나면 큰방에서 아침공양 준비를 한다. 송광사는 삼시세끼 발우공양이라 그 비중이 크다. 기본생활이 예불, 공양이라 하지 않던가. 오늘은 떡국이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발우에 담아먹으면 왜 그리도 맛있는지 모르겠다.

5시 55분. 사중 스님들이 대부분 열외 없이 참석하는 아침공양. 보는 눈도 많고 해서 중요한 시간이자 또 많은 실수로 자참거리를 두둑이 챙기는 치문반 스님들의 한 고비이기도 하다.

지금은 동안거라 그나마 나운데 습의가 한창이던 하안거 땐 정말 말도 아니었다. 지원을 안 갔네, 예비밥 자세가 안 좋네, 단추를 안 풀었네 등 일반인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법한 이야기들이 하루를 장식했었다.

긴장 많이 하는 스님들은 줄밥도 안 주고, 안 먹는다고 생반대를 1분자에 넣어놨는데 예비밥을 주고 가는 등 잦은 사건들을 터뜨렸으며 어떤 스님은 자신이 국 행익하던 중 갑자기 국이 먹고 싶어 생똥맛게도 멀리 있는 자기자리로 가서 국을 퍼다, 한 동안 국을 못 먹은 적도 있었으니 어찌 한마디로 다할 수 있겠는가. 오늘따라 글이 술술 써진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썼을 뿐인데...

지금은 치문반으로 습의도 다 끝나고 해서 실수할 일도 적지만 내년엔 사집반이 되어 아랫반 스님들을 가르칠 것을 생각하니 심히 걱정된다. 처음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대하진 않을까 하는,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아랫반



스님들에게 모범이 되어 잘 이끌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처음에 강원에 들어와 이것저것 하고 싶던 때에 비하면 한풀 꺾인듯하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대중에 어울리고 그 속에서 내 할 일을 잘 챙겨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삼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모난 부분이 좀 짝인듯하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배우고 소임을 보면 그 일이 힘들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 나는 과연 도반들에게 필요할 때 옆에 항상 있는 휴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직 어리고 혈기 왕성하여, 하심하지 못하고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지 못한 도반스님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定慧社**

무제 송산 스님 | 사집

정혜사 백일장을 한다고 해서 경상에 앉아보니 아무것도 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요즘 무엇에 감동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감정이 메말라 가는 것 같다. 매우 단순해져가는 마음이? 어떤 것이 밍고, 싫고, 짜증남도, 부정도 없이 그저 긍정하는 단순한 마음이? 감정적이고 세세하며 구구절절한 마음은 어디로? 그래도 꽤 섬세함을 간직한 마음으로 지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에 애쓰던 마음도 어디론가? 그저 활발활하게? 마음들의 마음을 묵묵히 찾아가는 길. **定慧社**

다짐 혜정 스님 | 사미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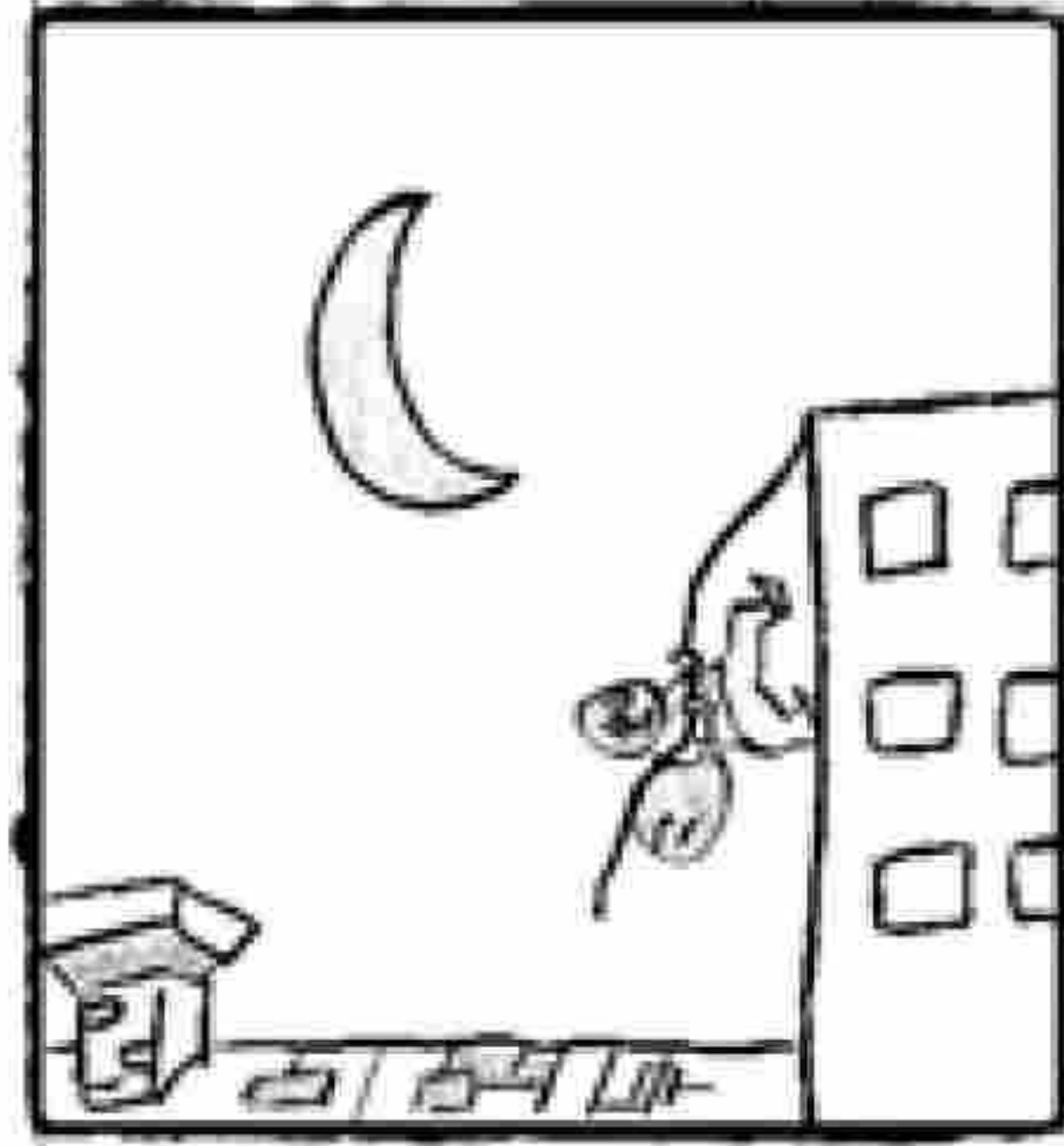
입산한지가 10개월이 되었다. 정말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속세에서 생활과는 많은 차가 있어서인지 40년간 살아오면서 잘못된 습관,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 이기주의와 남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 사미계를 받고 약 6개월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적멸보궁에 참배할까, 아니면 좋은 암자에서 기도할까 계획 중이었는데 은사스님 말씀이 송광사 강원애 사미반으로 입방하라는 말씀을 듣고 왔지만 정말 힘들다. 산철 결제 45일 이제 본결제(동안거) 90일. 이제 17일째다. 시간은 느리게만 가는 것 같다. 어느 스님은 잘 해 주시는 스님도 계시고, 어떤 스님은 질타다 지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 40년 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지시와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잘못 살아온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 광원암 현봉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다. 강원 생활은 중물들이기에 좋은 곳이라.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이 중요하단다. 이와 같이 스님도 소금물에 절이듯 숨을 확 빼야 나중에 중노릇 잘하는 스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강원생활(사미생활) 65일 정도 한 이 시점에서 그 때 현봉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출가한 것도 아니요 속세가 힘들다고 해서 현실도피가 아닌 나의 문제. 心(마음)에 대한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 출가했다. 나는 다짐한 진정한 수행자가 될 것을, 나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스님이 되자고... **定慧社**

백유경 이야기

옛날 어떤 부부가 떡 세 개를 서로 나누어 먹고 있었는데, 각기 한 개씩 먹고 하나가 남자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없다." 그러자 부부는 그 떡 하나 때문에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약속한 것이 있어 입을 봉한채 도둑이 하는 거동만 뻔히 쳐다볼 뿐이었고, 도둑은 그들 부부가 아무 말이 없자 이윽고 부인을 겁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곧 "도적이야"하고 외치면서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찌면 떡 한 개 때문에 도적을 보고도 외치지 않습니까?"



범부들도 이와 같습니다. 조그만 이름이나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잠자코 고요히 있지만 헛된 번뇌와 갖가지 악한 도적의 침략을 받아 선법을 잃고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지게 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출세할 길만 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섯 가지 쾌락에 빠져 놀면서 아무리 큰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환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어리석은 남편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축년 10대 뉴스 중에 용산 참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용산참사는 한해를 넘겨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구조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사회복지'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사회정책과 시설'이라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특공대 투입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회보장이 내팽겨쳐진 일레가 아닌가 합니다. 혹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해보지 못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요.

세간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라 한다면,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스님들은 지난 한해 모두 어디 있었고 어떤 목소리를 내었습니까. 여기서 잠깐 돌아보면, 지난 해 강원스님들이 동원되었던 종단 차원의 행사가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노 전 대통령님의 재 참석과 종교편향에 반대하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과연 이 대통령이 돌아가신다면 스님들이 참석할지 의문입니다. 불교 탄압만큼 환경탄압,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반대에는 얼마나 소리 높였는지 의문입니다. 승과 속, 중생과 부처는 마치 부부처럼 일심동체라 떨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백유경의 남편처럼 제 불이익과 아픔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용산 땅 남의 아픔은 모른 척 입을 다문 것은 아니었을까요.

글·그림 설산 | 편집위원

정혜탐방

붓다의 길따라 선원
진용스님 인터뷰



아짤 뻘나와로(진용스님)

도성 큰스님을 은사로 합천 해인사 출가
태국 아짤 통 스님에게 사사(師事)
마하 쯔라롱콘 대학 석사
태국에서 외국인 최초 삼장법사
붓다의 길따라 선원장
(사) 한국 테라와다 불교 대표

2009년 가을
편집위원 | 설산



INTRO 부산에 도착하다

인터뷰는 매우 힘들었다.

스님이 계신 선원을 찾아가려 부산대학 앞 지하철역에 내렸을 때 나는 거의 공황상태였다. 나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부산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부산대 앞은 사람들이 술 먹으러 많이 가는 곳이다. 이 말은 내 출가 전의 과거가 숨겨진 곳이란 뜻이다.

여기는 군대 가는 친구와 밤새 마셨던 술집, 저기는 옆 테이블과 싸웠던 곳, 학생이 담배 산다고 혼났던 슈퍼... 보살님마저 그대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괜스레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 이래서 옛 스님들이 출가하면 고향에 가지 말라는 구나. 쓰고 간 밀짚모자를 깊게깊게 눌러쓸 뿐이었다. 그리고 이곳 어디쯤 사시는 부모님 생각... 나는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리고 있었다.

게다가 사실 진용스님은 내가 원했던 인터뷰 대상은 아니었다. 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앞에 불전함 하나 덜렁 놓고 탁발하는 스님과 인터뷰하기 원했었다. 진짜 스님은 맞는지, 종단은 어디인지, 왜 이려고 사는지 등등 법이나 진리, 승단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사진과 밑바닥까지 솔직한 내용. 멋질 것 같지 않은가...

당장 그 저급한 속가의 습기는 지우라. 그런 거 했다간 강원에서 쫓겨난다는 도반스님의 간곡한 만류와 잔소리에 결국 평소에 뵈고 싶던 진용스님께 인터뷰 부탁을 드렸다. 하지만 내심 도반스님의 충고에 불만이 가득했던 나는 절대 법에 대해서 또는 위빠사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는 속내로 스님과 마주 앉았다. 인사를 드리고 차 한잔을 받을 때까지도 내 머리 속은 이런저런 계산으로 복잡하다 못해 멍해 있었다. 뭘 물어야 하나...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스님이 먼저 입을 떼셨다.

1. 생각 많은 인터뷰어와 무덤덤한 스님

저를 어떻게 아시고?

스님은 생각보다 당신이 유명하단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았다. 물론 조계종단에서야 관심을 못 받으시지만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이 있다면 뵈지는 못했어도 소문 소문으로 알고는 있을 터였다. 부산 태종사에서 주지 소임도 잠시 보셨고 또 도성큰스님의 상좌이기도 하시니 말이다. 학인스님들의 요청으로 인터뷰 왔다 말씀드렸다. 사실 보조스님의 숨결아래 살아가는 송광사에서 참선은 너무 가깝다. 이 말은 가까운 만큼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쯤은 다른 수행에 대해 들어볼 때도 된 것이다.

인터뷰 요청 받으시고 어떻게요?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시던가요?

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피할 이유가 없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 간단하다. 와서 물으라. 대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다. 나는 말씀해주시라. 받아 적겠다는 뜻이었다. 머릿속이 점점 하얗게 되어간다. 또다시 침묵.

하... 사실 제가 뭘 물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죠. 하하. 어쨌든 테라와다 불교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맞나요? 네... 87년도에 태국으로 나갔네요. 88년에 계를 받고. 벌써 한 20여년 되었네요. 처음 나갔을 때는 한

국 승려 입장으로 나갔습니다. 계를 받는다든 생각도 없었고 한데 어느 날 지금 태국의 은사스님(아짠통 스님)이 저에게 오셔서 물으셔요. 금방 떠나갈 것인가 하고 물으시길래 부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같아서 오래 있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승가의 일원으로 살 아라 하시기에 계를 받고 처음 남방 가사를 입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한 1년 정도 있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식 태국 승려로 살다보니 겪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자연히 부처님법과 이 길이 마땅하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 가사를 벗지 않고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 태국 얘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 가까우셨습니까?

고1때부터 집에서 나와서 진주 연화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절이 좋았어요. 고1때 해인사 여행에서 받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된 이유가 컸습니다. 딱히 어려운 가정형편도 아니었는데...

그런 걸 집에서 허락을 해주십니까?

안 해도 어떻게 거라? 하하

* 출가 전의 일들에 대해 짧게 질문을 드리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나는 내 인터뷰 컨셉을 자연스레 포기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를테면 정사(正史)가 아닌 사사로운 야사(野史)를 읽고 싶었는데 스님에게는 개인적인 삶이 없어 보인다. 그냥 수행자의 삶만 있는 것이다.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말이다. 대학에서는 대불련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출가. 고등학생 때부터 출가 전까지 계속 불교관련 단체장을 하시다보니 자연스레 민주화 운동 이력이 있기도 하시다.

2. 태국스님으로 산다는 것

해인강원에서는 왜 나오시게 되셨어요?

당시에는 부처님의 법이나 율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습

니다. 특히나 선배스님, 조사스님들의 어록들 말이죠.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물론 제 결정이 저에게 맞는 길이었긴 하지만 다만 그렇게 무작정 뛰쳐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이후에 태국에 가시기 전에는 팔리불교대학 한국분원에서 잠시 공부를 하셨었네요? 당시에는 상좌부 불교가 매우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처음 공부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빨리어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죠. 근데 강원에서 나온 이후에 부전도 살다가 은사스님 밑에 있기도 하다가 하던 중에 은사스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스님의 은사스님은 도성큰스님이시다.) 부전을 살 바에야 차라리 공부를 해봐라 하시어서 서울에 팔리불교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사스님이 왜 남방가사를 입고 계신지 생각해 보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업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성에 안 찼죠. 빨리어 수업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였어요. 그리고 뭔가 출가자로서 가슴속에 와 닿지 않고 메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어가 해소해주지 않을까 해서 빨리어가 살아있는 곳으로 가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스리랑카로 가려 했는데 당시에 내전이 있었고 해서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석 달 만에 빨리어와 태국어를 습득하셨네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열심히 했죠.

그게 젊다고 됩니까?

수계를 받으니까 은사스님이 무조건 학교를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국어로 빨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고... 물론 처음에는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했습니다. 일단은 무식하게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외웠습니다. 외우고 나서 그것이 가슴에 와 닿게 되면 의미들은 하나를 알게 되면 두세 개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다. 그러면 처음엔 늦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지금도 조언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예불문이라도 주면서 일단 무조건 외우라고 말을 해줍니다.

* 언어를 습득하는 부분은 강원에서 강사스님들이 가르쳐주시는 방법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 열심히 하는 것. 스님은 이 시기에 사나브로 수마를 극복하셨다고 한다.

지도해보시니까 빨리어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완전하게 우리말처럼 구사하려면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어, 외국어 하듯이 결국 본인 노력에 따르겠네요.

그보다는 교육체계가 중요한 것인데 태국 같은 경우는 레벨이 올라가는 체계가 까다롭게 잘되어 있습니다. 일정수준이 된다면 반드시 빨리어로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교육이 태국의 사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입니까?

마하출라롱컨 불교대학입니다. 보통 세계에서 빨리권의 불교대학은 태국의 마하출라롱컨, 스리랑카의 팔리대학교, 필라데니아 대학을 꼽습니다. 근래에는 버마 불교대학이 있지만 아직은 조금 레벨이 떨어지고... 인도의 뿌나대학교도 있구요. 마하출라롱컨의 학문적인 영역이나 규모는 매우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언제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3. 삼장법사의 자격

가신지 10년 만에 태국 교단에서 삼장법사 자격을 받으셨는데 제 생각에 한국스님으로써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모르는 일인 것이구요. 어쨌든 태국에서는



기간에 따라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품계처럼 계를 설할 자격, 제자를 두고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등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을 통과한 것인데 조금 빠른 편에 속한 거죠. 그때 국왕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태국에도 삼장법사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었고 해서 자격을 갖춘 스님들에 한해서 빨리삼장 시험을 치르게 됐죠.

* 상좌부전통의 삼장법사 심사는 매우 엄격하다. 단지 삼장에 대한 암기, 낭송, 필기시험뿐이 아니라 수행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여러 각도에서 심사를 치르게 된다. 그래도 어쨌든 삼장 전체를 다 외워야 한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현재 미얀마에 십여 명, 태국에는 20여명 정도의 자격을 갖춘 스님들이 계시다.

그런데 태국불교라 하면 스리랑카나 미얀마와 같습니까?

테라와다 불교는 어디를 가나 같습니다. 빨리 삼장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고 율장을 해석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는 항상 교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끊어진 맥을 이어주기도 하구요. 그것은 테라와다 불교가 부처님 말씀을 한글자도 변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다 해서 불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 중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셨어요?

오히려 환희심이 났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 뜻은, 제 입장은 아무래도 독자를 염두에 뒀어야하니까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원하니까요. (사실 이런 인터뷰에 무용담 하나쯤은 있기 마련 아닌가...)

그런 거는 모르겠고(없다고 하실 줄 알았다.) 수행에서 오는 장애나 교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장애는 있었죠.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태국에서는 법을 설할 자격을 갖춘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법을 설하거든요. 그런데 내 차례가 아닌데 또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하하. 그때는 한참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들과 환희심 때문에 빨리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런 게 장애가 되기도 했어요.

그다음 수행을 하다 오는 장애는 수행 중에는 여러 가지 신통이 개발이 됩니다. 이런 것에서 오는 수행적인 부분들이 교학적인 장애들보다 더 오래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매우 민감하게 되고 해서 지금은 오른쪽 눈과 귀가 보통사람들 이하의 기능을 하거든요. 장난을 좀 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소리를 자유롭게 듣거나 듣지 않거나 또는 크게 듣다가 작게 듣다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깜빡 사피를 놓치면 고막을 다치기도 하고 눈을 다치기도 하구요. 은사스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스승이 있어서 잘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 남방의 수행은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 남방수행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스님은 스리랑카 불자들의 요청으로 스리랑카에 관월암을 개원하시기도 했다. 스님의 수행력은 설명하지 않아도 유명하시다.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다.

4. 테라와다 불교의 정신과 한국

처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는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셨습니까?

아니죠. 은사스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스님 다음으로 차기 가람을 이끌 스님으로 임명된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셨었죠. 근데 나는 그래도 가야된다 그러고...(웃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은사스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 힘드셔서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은사스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 마음의 짐으로써 작용을 했죠. 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수행에 성취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돌아오셔서 잠시 태종사에서 주지소임을 보시기도 하셨구요. 그런데 이때 당사가 한참 남방에서 공부하신 스님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한국 테라와다불교가 창립이 되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인이 지금 한국테라와다불교에 출가해서 수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구요... 그래서 제가 태종사에 있을 때 태국승단에 요청을 해서 결계사를 세웠거든요. 계단이 승단에서 허가를 받아야 비구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주려면 계를 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스님 3명과 다른 한 분의 스님, 이렇게 해서 4명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 혼자 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그런 스님이 안계시구요.

다음 (사)한국테라와다불교에 대해서는 한 2년 전에 수행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테라와다 스님들의 현실을 보게 되거죠. 계율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에 거처할 곳이 없다든지, 체계적이지 않거나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몇몇 스님들이 모여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구성한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생하려고 있다. 그렇다면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통일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 수행적인 부분, 승가의 생활 같은 부분 등의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정립을 하지 않으면 자칫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의 정신을 흐릴 수가 있다는 문

제의식으로 아직은 그냥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한국테라와다불교는 수행뿐만이 아니라 승가의 의범이나 불교의식 및 용어의 정립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의 바람처럼 종교, 종파를 초월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상좌부 불교는 우리로서는 타자의 불교이지만 진용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스님에게 테라와다 불교는 지역이나 형태를 떠나서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출가 본연의 정신이자 메타적인 자세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활동하던, 어떤 여타 종단과 같이 있어도 전혀 상충될 것이 없는 것이다.

얼마 전에 테라와다불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주제들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질문해야 할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것 같던데요. 자료를 좀 얻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들은 저희 전통적인 테라와다 불교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한국의 테라와다를 전공한 학자님들의 견해들이구요 저희의 견해는 따로 있습니다. 충돌되는 것들이 뭐냐면 테라와다의 발생이 2차 결집부터냐 3차 결집부터냐 하는 그런 문제부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테라와다 불교의 견해는 항상 즐기칩니다. 1차 결집 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차 결집 때 정해진 담마, 비나야가 2차 결집 또 3차 결집 때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2차 결집 때 썼다, 3차 결집 때 썼다 하는 것들 자체가 틀렸다고 보고 있죠.

기존에 읽어 아는 내용과 약간 다른 점도 있네요?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테라와다라 하는 것은 부파 불교와는 관계없이 1차 결집 때부터 그대로 보존되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지금의 학자들과는 조금 틀린 견해죠. 테라와다 불교와는 관계없이 대중부나 설일체유부들의 부파가 생겨난 것이죠. 부파불교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테라와다 불교는 본래의 근본교단입니다.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들은 엄청났거든요. 또 이것이 테라와다 불교의 정

신입니다. 불교의 정신은 항상 부처님 법과 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자들이 얼 만큼 존재하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 이후에 책으로 묶어서 나가게 될 때 테라와다의 견해를 앞부분에 첨부하실 거라 하니 이 부분은 책자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5. 강원 스님들의 질문

이제는 강원 학인으로써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스님은 테라와다 스님으로써 자신의 교학체계와 수행법을 찾으셨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아직은 좀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빠사나 수행을 선택하려는 스님들에 대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대승의 승려이든 테라와다 승려이든 출가자는 출가자의 길을 간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를 받아 지니는 것, 참회하고 포살하는 것, 그리고 결제기간을 지키는 것과 해제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포살 같은 것도 와다빠띠모카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혼자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가자의 정신을 항상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런 중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수행에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강원에 있고 하니까 의식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졸업을 하시게 되면 사찰의 운영이나 보수, 유

지, 건립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재가자의 몫이지 스님들의 몫이 아닙니다. 불상하나 불탑하나 세우는 것도 스님들이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과 스님들을 외호하는 것이 두가지는 재가자의 몫입니다. 자기 수행과 법을 설하는 것이 스님들의 몫입니다. 물론 여러 사회적인 활동은 스님들이 담당할 몫이지만 그것은 재가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스님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견제장치 없이 스님들이 주도하다보면 사회화 되어 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복지를 많이 하시는데 직접적 활동 대신 이론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물론 이론적 정립은 스님들의 몫입니다.

다양한 응용불교학과 같은 부분들도/

지금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부처님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도 매춘이나 에이즈의 문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문제들과 같은 것에 대해서 다 절에서 해결하려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을 굽습니다. 그에 대한 충고, 가서 법을 설하는 것들,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도 스님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들, 이것은 재가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나는 이 부분이 상좌부 불교를 잘 나타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전승 그대로 사는 것. 하지만 태국이나 미얀마는 말 그대로 불교국가이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말할 때 근현대의 역사적인 한국불교의 상황을 본다면 이는 틀린 견해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붓다의 길따라 선원은 온전히 재가자의 손으로 운영되고 한 달에 한번 재정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스님의 말씀이 틀렸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불교가 탄압받고, 전쟁과 전후의 난장판을 겪고,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던 때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이고 다원화 사회가 되었다. 탁발은 불가능하지만 재정을 재가에 넘기고 스님이 수행과 교화활동만을 하는 것은 뜻이 있

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 개개인의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경계 짓고 조절하려면 반드시 출가자로서 삼보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출가자로서 담마에 대한 정립이 있어야만 부처님 말씀처럼 자등명 법등명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길을 찾고 수행법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나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긋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신의 장치를 먼저 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6. 위빠사나 수행 첫걸음

제가 간화선 할까요 위빠사나 할까요 여쭙는 것은 아니구요.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답들은 내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겠다 결심한다면 정확히 어디 수행센터가 좋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이 책을 읽으라. 영어를 해야 한다. 비자문제 같은 것들은 이렇다. 뭐 이런 피부에 가까운 답들입니다. 아니면 이곳 붓다의 길따라 선원이 있으니까 이리 오라던지요.

저도 상좌가 한 명 있습니다. 태국에 나간 지 한 3년 됐는데 그때 10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곳 승가의 수행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몸에 익혀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승가생활을 직접 겪으면서 수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러 가더라도 수행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테라와다의 일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가의 교리와 경전, 그리고 습의를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수행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환희심은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경으로 뒷받침 되지 않고 스님으로써 위상의 확립이 안 되면 밀어붙일 힘이 안 생깁니다.

여건상 수행센터에 가게 되더라도 이것들을 동시에 같이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인스님들이 배워보고자 한다면 물론 여기 붓다의 길따라 선원에 오셔도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되지만 아직은 출가자들을 수용해서 교육할만한 넉넉한 공간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자 노력 중인데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나중에 안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외국의 센터에 나가려 한다면 영어를 좀 해야 될까요. 스님?

한국에서 배우고 나가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나가서 부딪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답답하면 하게 되잖아요.(웃음)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부딪치면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음에 마음을 내어서 가는 분들은 되도록 센터에 가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승단에서 일단은 계를 받고, 습의를 익힐 수 있는 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라와다 스님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한국스님으로써 수행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폭이 없어져 버립니다.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왕 출가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데 뭐 여기 있으면 어떻게 저기 있으면 어때요? 바르게 출가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배우고자 한다면 좀 유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요즘에는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인기가 좋아졌다. 그러나 많은 은사스님들이 아직까지는 당신의 상좌를 강원에 보내려 하신다. 진용 스님 역시 승가의 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아 우리 은사스님들과 비슷한 생각이시라 추측해본다. 그래도 어쨌든 상좌 이기는 은사스님은 없다. 자신이 원하는 처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네. 수행에 발을 내딛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저... 이제 위빠사나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강원에 있다 보

니, 또 게다가 송광사에서 살다보니까 아무래도 정혜쌍수, 지관 겸수 이렇게 머리에 굳어 있어서 마하시 계통의 선정 없는 순수 위빠사나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참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원래 테라와다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순수 위빠사나 계통은 아닙니다. 사마타 수행을 겸하면서 하는 위빠사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위빠사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마타 수행법은 틀렸다 하고 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테라와다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기도 하구요.

그 대신에 사마타와 사맛디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사맛디가 형성된 상태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사맛디는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위빠사나다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위빠사나를 할 경우에는 물론 사맛디가 카니까 사맛디라 해서 찰라 삼매를 형성되도록 해서 사띠를 이어나간다는 것인데 찰라삼매와 본삼매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착각합니다.

네? 저희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전 상에서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행 상에서는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그 찰라 삼매를 자기가 원해서 더 오래도록 하려한다면 본삼매가 되는 것이고, 본삼매라 해서 찰라 삼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 상에서 이 둘을 구분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은 반드시 위빠사나 수행에서 필요합니다. 겸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위빠사나가 들어오면서 마하시 계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고 또 근래에는 사마타 수행하는 파육 센터 쪽이 들어오고 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행이 없는 상태에서 책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본삼매와 찰라삼매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놀라기도 했구요...

마찬가지 선정도 사선정 팔선정 말을 하는데 사선정 안에 팔선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건조해져 버리죠. 수행에서 이루어야 되는 최종적인 것이 나라는 것, 나의 견해를 없애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안 떨어져 버리고 항상 이것저것이란 개념에 얽매어 버리면 더욱 더 건조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행지도가 전통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거죠.

수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간화선 말인데요... 그 죄송한데...

(질문을 드리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테라와다 스님께 간화선을 왜 묻는단 말인가. 나는 간화행자를 자처하고 있다.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내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못난 질문이라 뜬금 없이 많이 들이게 되었지만 의중을 아셨던지 말씀을 끊고 답을 하셨다.)

그것은 제가 조언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송담 스님 회상에서 화두를 타고 한철 산 것이 다거든요. 다만 앞선 선배로써 드리고 싶은 말은 간화선이 틀린 것은 아니란 거죠. 자신의 인연이 간화선이면 간화선을 하는 것이고, 테라와다면 위빠사나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만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반드시 결과물을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행여 의정이 돈발이 안된 상태더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집중하는 것만이라도 짚지게 하면 충분히 본삼매까지 개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빠사나는 따라옵니다. 선법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죠.

출가자답게만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법이 열립니

다. 지금의 현실을 탓하고 휘둘리지 않고 수행자로써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거죠. 부처님 말씀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출가자라면 반드시 실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출가인은 출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재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겁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을 의지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방편은 방편일 뿐입니다.

7. 인터뷰를 마치며

스님들은 많이 찾아오십니까?

많이 옵니다. 초보자들은 좀 적고, 보통 5년 정도 이상 수행하신 분들이 오시고 같이 수행도 하고 하지요.

수행을 해보고 싶다 해서 학인스님들이 찾아오면 받아 주십니까?

그럼요.

근데 저희는 돈 문제가 있어서요.(웃음)

저희가 돈을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아니요. 저희가 받겠다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 학인들이 체험을 해보고자 선원이나 센터에 가면 프로그램 참가비를 몇 십만 원씩 내라는 곳도 있어서요.

아 그건 출가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곳 선원은 재가자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편 따라 합니다. 통장번호만 알려주고요. 저도 이곳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운영을 재가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로 집중수행기간이다 해서, 특별하게 일이 있다 해서 받는 것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부담은 안가지셔도 됩니다.

스님 요즘 일정은 바쁘시죠?

결제가 끝나면 한 템포 더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법인스님들 교육

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행교육이나 의식에 대한 것들을 정립을 해 나가야 하는 것도 있구요. 요즘은 좀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바쁘신데 건강은 어떻게요? 저는 요즘에 좀 크게 아파서 고생을 했거든요.

항상 괜찮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감기가 안 걸립니다. 거짓말 같죠?

당연히 거짓말 같죠. 바이러스는 좀...

아닙니다. 사피 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섭생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야 믿어야 되겠네요.(웃음)

저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힘들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출가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 법이 참 고맙다고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에서 생활하며 경을 읽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고 막히는 부분들은 수행을 통해 풀려 나갈 때가 많을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처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부처님 말씀 중에 “이리 와서 보라. 이것이 너에게 맞으면 네가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출가자의 길이고 성현들이 칭찬하는 것이다.” 하는 계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얼마나 당당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원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해소가 다 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살다보면 언어가 해소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번역본을 읽어나가더라도 원전을 또 원전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구요. 또 법을 설할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출가자는 부처님의 대리인 역할이지 내 견해를 내세우고 내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들어야 할 것도 물을 것도 참 많았는데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답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이 자꾸 줄어드네요...(웃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요. 제가 고맙죠.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나고 하거든 올 형편이 못되면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십시오.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맺는 말

인터뷰를 마치며 자연스럽게 또 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스님에 대한 느낌은 말 그대로 삼장법사라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행보를 하던지 조언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스님이란 생각이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하루였다.

스님과의 인터뷰 중에는 항상 사피가 이어지는 듯한 평이한 음성이 기억에 남는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실언이 없으셨다. 허점이 없다는 것. 나는 평소 스님이 그러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대하고 보니 이런 점은 약간 무섭기도 하였다.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 보니 좀 더 깊이 있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제는 상좌부 불교와 위빠사나 수행이 국내에 소개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바르게 자리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중에 스님과 (사)한국테라와다불교는 많은 관련 단체 중 가장 안전한 의지처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定慧社**

우는 절 우는 중

도옹스님 | 사교

우리절 다들처음 올라올 때에
등에진 배낭짐도 무거워 울고
가슴속 인생짐도 무거워 울고
어깨다리 가슴속 아파 울지요

다 올라 와서 보니 이득한 절벽
아슬아슬 새 등지 같아서 울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뵈고
웬지모를 설움에 그냥 울지요

스님께 절 올리고 차 한잔 받고
따스한 정겨움에 애써 참지만
은근히 건네시는 농담과 눈길
바보처럼 웃다가 속울음 울고

절 스님 뒤로 하고 내려가는 길
돌아보면 넘어진다 앞만 보거라
그 말씀에 이제는 감출 것 없는
닭똥 같은 눈물들 아예 쏟지요.

스님을 처음만난 십오륙년전
지리산 골짜기서 스님이 모는
경운기에 흙모래 짐되어 타고
초겨울 늦은 햇살 스님 뒤편까지
그림자 쳐다보며 그냥 울었지

더벅머리 깎을 때 속없이 울고
엄히 경책하실 때 한심해 울고
시름시름 앓으시는 가녀린 체구
아직 받아 짊어져 드리지 못한
스님의 바람무게 가늠해 보며

삼시세끼 공양 때 스님 쓰시던
바리때에 밥 받아먹을 때마다
햇중 한 놈 저 혼자 목메어 울지
야삼경 한밤중에 큰방이불속
부처님 큰 은혜에 멍멍해 울지. 定慧社

발원문

도엄 스님 | 사집

눈이 눈이 우주에 가득 차 두루 밝아 밝아 또 밝아
 모든 중생 한자리 한자리 한마음 한마음
 한 몸 한 몸 만물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큰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 계율 무위법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손 되게 하옵소서.
 고요한 물 흐름과 같이
 제 마음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定慧社

※ 도엄스님은 네팔에서 오셨습니다. - 편집부 -

도엄스님

송광사 강원예 공부하는 삼
 도엄스님입니다. 한자를 못해
 아주 어려워요. 고리도 나무 지미웠어



그스님은

일현 스님 | 치문

그 스님은 요가 강사로 변신하여
친절하게 강의를 해 주신다

그 스님은 없는 습의 사항도
만들어 주신다

그 스님은 화타와 맞먹는 의술로
도반들을 치료해 주신다
지나친 치료로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다

그 스님은 윗반스님이란 단어를
웃반스님이라고 표현한다

그 스님도 언젠가 부처가 된다 定慧社



자미원 회억(回憶) 동도스님 | 치문

1997년 겨울이었다. 스산한 바람이 보도 위의 지친 낙엽들을 무섭게 으르고 있었다. 지친 몰골의 군상들이 마지막 한숨을 남겨두고 떠난 지하철 1호선 역사를 뒤로하고 가파른 계단을 반쯤 오를 때 짙은 운명처럼 그를 만났었다. 그는 생면부지인 나에게 잠깐의 동행을 제안했었고 나는 무심히 그의 제안을 수락했었다.

촉수 낮은 백열전구의 불빛이 허름한 포장마차의 구석마다 덩수룩한 수염 때문에 무척 까칠해 보이는 그의 각진 얼굴의 옆모습을 투영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 했었다. 못 사람들의 질서와 기대를 모았던 학창시절의 이야기와 40을 바라보는 늙고 초라한 고시 수험생이 된 지금의 절망적인 일상들. 경제적 궁핍함과 주위의 차가운 시선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자신의 넋두리를 진지하게 들어준 내게 감사의 답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것도 한 판의 삶인데 도전해 볼 충분한 매력이 있을 것이라며 나의 동요를 부추겼다. 교재의 선택, 경제 여건과 주위의 환경을 고려한 공부의 장소 등. 초등학교 훈장처럼 그는 세세하게도 같은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그의 충언대로 내 젊은 날의 한스러운 추억들을 강원도 오지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만들기로 결심을 굳혔었다. 몇 권의 법서를 훑어지고 그가 말한 강원도 정선의 자미원역을 향해 떠났었다. 태백선은 그러했다. 가장자리 수초 군생이 무성한 동강을 따라 영월을 지나면 이름이 아름다운 예미역이 있었다. 여기에서 시작된 듯한 폐광촌 마른 탄가루가 하천을 타고 거슬러 오르다 멈춘 구절리역 못 미쳐 자미원역이 있었다. 허름한 역사를 빠져나와 갈대 울음소리가 서러운 야트막한 산을 향해 얼마쯤 오르면 자갈길 사이로 폐광촌 낡은 직원 숙소를 개조한 을씨년스런 고시원 건물이 보였다. 기약 없는 청춘을 담보한 가련한 군상들이 나를 흘금거리다 사라져갔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서로 얼굴조차 마주칠 일 없는 철저히 낯선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만의 세계에 나는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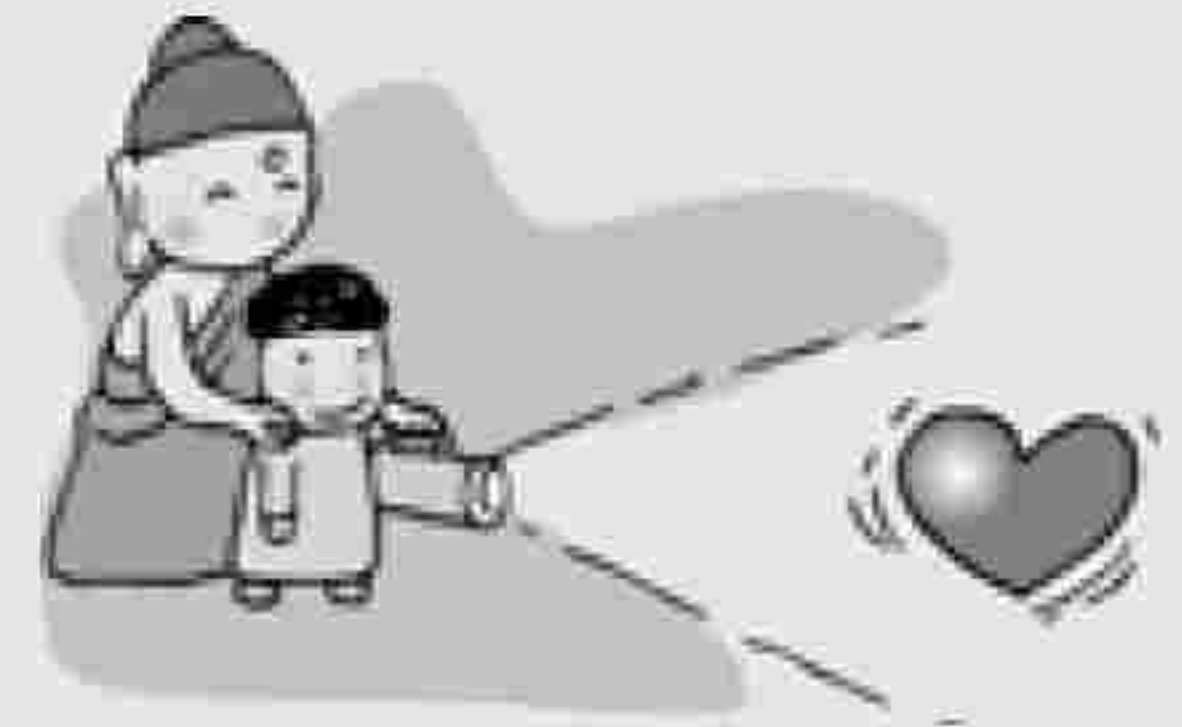
물가치 하다고 여겨졌던 단순한 언어의 유희 같던 온갖 학설들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를 2년여 남진. 우리 몇몇은 참으로 오랜만에 고시원 주인의 초대에 응해야 했었다. 눈빛이 선한 그는 몇 번 초점 잃은 큰 눈을 껌벅거렸을 뿐 한마디 말도 없이 창밖의 늦가을 저녁노을이 물들여 놓은 창백한 배롱나무의 마른 가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낡은 사과 상자속의 물건들을 꺼내어 우리들 앞에 펼쳐 놓았다. 거기에는 내 뭇도 들어 있었다. K가 남긴 유품이라 했다. 나는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야 했었다. 그였다. 2년여 전 봉천동 4거리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지난했던 삶의 자국들을 소설처럼 내게 들려주던

그 늙은 고시생이었다.

고시원 주인은 더듬더듬 그와의 만남을 이야기 했었다. 한 때 촉망받던 그는 몇 번의 낙방을 경험한 후 경제적 어려움과 주위 시선의 부담 때문에 힘들어 했었고, 그런 그에게 주인은 그의 수험 생활을 조건 없이 지원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낙방 후 그는 이곳을 영원히 떠났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우리 모두는 그와의 인연으로 이곳 고시원에 오게 된 것이었고, 그것은 그의 이곳 주인에 대한 부채 상환의 한 수단이었던 것이었다. 그의 손때 묻은 낡은 수험서를 펼쳤다. 색 바랜 표지가 너털거리는 이미 전설이 된지 오래인 수험가의 필독서였던 [형법총론]이었다. '안락사'의 위헌 여부를 논하는 장에서 나는 시선을 멈췄다. 첨부된 쪽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Euthanasia', '합헌적 권리', '그 권리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는 첫 판결의 주인공' 등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철 지난지 오래인 골동품이 된 책을 그는 왜 내게 남겼을까. 그는 오래전에 이미 이때를 예비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그 스스로가 합헌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첫 판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었을 것이다. 나는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철길을 따라 도열한 잎을 떨군 배롱나무의 긴 몸부림을 뒤로 하고 늦가을 바람이 차가운 자미원을 그렇게 나도 떠났었다. **定慧社**



따분한 초심자의 낯두리 일각스님 | 치문

말복이 지난 한여름. 장마도 지난 더위는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햇볕이 좋아 오늘 같은 날씨는 빨래 말리기에 좋다. 이틀에 하루 정도는 이런 날이 있어야 에어컨 한 대 없이 부채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 스님들에게 신변정리하기 좋다. 워낙 글 솜씨도 없는지라 그저 글 쓸 기회가 주어지면 근간에 고민하고 느끼는 일들에 대해 두서없이 쓰고 혼자 만족해하곤 한다.

이 곳 송광사는 경내에서 휴대폰도 안 터지는데다가 우리 치문반은 긴급한 용건이 없는 이상 전화도 안 쓰고, 신문 잡지도 가까이 하지 않는지라, 말 그대로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살아간다. 보통 사람들에게겐 답답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연에 눈을 돌리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다. 토끼풀, 국화와 쑥, 작약, 상사화 등 모두 절집에 들어와 알게 된 이름들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아파트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어야 사는 것도 아니며, TV, 인터넷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날씨가 비가 올듯하면 개미들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고 한다. 요즘 일기 예보도 가끔 틀리곤 하는데 이들은 얼마나 영리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가. 세속 사람들은 요즘 대통령, 국회의원들 얘기, 주식 얘기, 자식들 진학 얘기,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얘기, 연봉 많이 주는 직장 얘기들을 많이 한다.

삶의 큰 물줄기가 마치 그것들 중 하나인 듯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 목숨 걸고 살아간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성 문제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딱 그렇지 않은가. 인생이 한 편의 연극이란다. 속지 말고, 조고각하(照顧脚下), 현실을 바로 보고 옆 사람의 연극에 놀아나지 말아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닿는 인연마다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지 아니한가. **定慧社**

어린이 포교와 불가무창기 불왕관청

원산스님 | 치문

스님이 되기 전, 대학생 불교학생회 회원이던 시절, 학교 행사마다 스님들을 초청해서 설법도 듣고, 학생들 장기 자랑도 보여 드리곤 했었다. 특히 기억나는 행사가 학생회 창립 법회였는데, 불교에 관련된 연극이나, 최신 유행 춤, 합창 등등 장기자랑을 하고는 스님들을 모셔서 장기자랑을 보곤 했다. 대부분 비구스님, 비구니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난색을 표명하고는 그대로 자리에 앉거나, 억지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게을 상 할 수 없다며 들어가곤 했었다. 그럴 때마다 대학생이자 마을 사람인 우리들은 스님들이 참 멋없고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그래도 연례행사처럼 스님들을 무대로 모시고자 박수치며 장기자랑을 하시라고 독촉하자 목 깃 부분에 감색 띠를 두른 스님(사미스님)이 당당히 나오더니, 지금부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춤의 변천사를 보여주겠다며 뮤직을 틀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용감해 보이기도 해서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해 주면서 음악을 트는데, 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추시는 거였다. 하지만 승복을 입고 춤을 추니 춤은 멋있지만, 그 위이라고 하는 것이 사정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회색승복에 고무신, 그리고 격렬한 음악과 브레이크 댄스라니... 내가 너무 고지식해서였는지 환희와 감사보다는 실망이 앞섰다고나 할까. 행사를 마치고 후배들에게 다음부터 스님들 인사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 생각난다.

이제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고, 소임 중 하나가 어린이 법사이다. 그러다보니 어린이 법당 자체적인 큰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이때마다 부딪치는 것이 바로 춤, 노래다. 상대는 무수히 많은 어린이들이고, 또 어떤 때는 불교학교 강사 선생님들이다. 어린이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무엇보다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참선, 염불, 절만 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노래와 춤으로써,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 경험상 스님 모습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행사 있거나 어린이집 방문만 해도 의례히 시키니 죽을 맛이다. 게다가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춤, 노래와는 거의 담 쌓고 살다시피 했는데, 이건 어찌된 것이 스님 되니까 더 시키는지... 부산 관음사와 송광사 어린이 법당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 장기자랑을 하고, 나오려는 데 십여 명되는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무대에 끌려가다시피 나왔고, 음악은 들리고 앞에서 아이들이 뭘 좀 해보라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얼굴만 빨개져서 박수만 몇 번 치다가 도망치듯 나왔다. 뒤에서 10살 쯤 된 어린이가 하는 말 “저 스님 정말 재미없다.”였다.

그날 밤에 한참 고민했는데, “나도 마을 사람들처럼 뭔가 18번을 준비해야하나? 그리고 어린이 법회 할 때, 찬불가(최신)와 어린이 율동을 배워 와서 해봐야하나?”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도 고민 중인데, 정답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定慧社**



뜻뜻한 치문반의 한 생각 연각스님 | 치문

아름다운 글은 신지 않는다. 윗반에 대한 어떤 말도 좋다. 솔직한 마음을 적으라는 편집장 스님의 멘트가 잠시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뒤틀어 아닐까?’ 하고, 강원에 들어와 솔직, 진심으로라는 말이 참 어렵고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나의 진실된 마음, 더러는 보편적인 공경심도 습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야한다. 대중의 화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想’을 내세우지 말라는 가르침을 내세워 정해진 틀 속에 밀어 넣는다.

대중화합도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상을 여의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기에 그것에 수순함은 수행자의 기본일 것이다. 억울함을 이기고 묵묵히 자신을 관조하는 것도 공부이면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준다.

허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우리 강원의 전통을 세움에 강원이라는 틀을 넘어 승가, 즉 무명에 덮여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어느 스님의 말씀이 2~3년 전에 일명 머트럽던 아랫반 스님이 흰 옷을 입는 것이 맘에 안 들어 그 때부터 흰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난 그 얘길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더 더욱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바른 견해로써 바르게 사유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지도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변한다면 그것은 전통이 아닐 것이다. 이것 또한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바라볼 때는 상을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쩔 내 스스로 표적을 자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쩔 것인가. 나는 아직 삼독심에 어두워 十八界를 넘어설 수 없는 범부인 것을... 쓰면서도 많이 머뭇거리진다. 내가 잠깐 판단을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나 진심이 통한다면... 이제 갓 출가해서 승가를 들먹이고 강원의 전통을 들먹이며 짧은 소견으로 상을 내어 대중의 화합에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또한 서로를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편적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전통을 만들어 아름다운 송광사 전통강원이 되길 발원합니다. **定慧社**

대혜종고 스님께 올리는 편지 창연스님 | 사집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보니 올해도 벌써 일촌광음(一寸光陰)입니다. 제가 부처님의 마지로 끊어진 명(命)을 다시 이으니 뜻에 보답하고 다시 생(生)하지 않기 위해 출가한지도 3년이 되어 갑니다.

어릴 적부터 불법의 그늘에서 자랐지만 출가 당시 심신(心身)이 굳건하지 못하여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를 끼쳤으니 이 얼마나 죄가 크겠나만은 지금에서야 서원을 세우고 정면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공부하기는 어렵고 장애가 되는 것들은 참된 선지식보다 많아 다시 한눈판 사이에 꿈을 꾸니다.

모르겠습니다. 강당에서 불경을 배우고 은사스님의 밑에서는 가르침에 따라 참구하고 있지만 ‘이 뭐 꼬?’ 를 들어도 의심이 나지 않고 발전된 모습도 보이지 않아 조금함이 생겨 몸만을 조복 받으려 하고 나의 잣대로 나와 남을 옳아 매이게 합니다. 제 스스로 잘못인줄 알아 눌러도 다시 어느 순간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가 될 뿐 부처가 말하지 못할까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견해로 남을 다치게 할까 조심하며 내가 곧 부처임을 알고 있지만 정견이 없어 다만 항상 해매고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음도 허물이 적지 않지만 조심히 다 보여 여쭙어 보니 원컨대 스님께서서는 부디 어여삐 여기어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꽃을 피워 널리 향기롭게 하겠습니까? 定慧社

애송이 정목스님 | 사집

‘삶이 힘들다고 하는 애송이들은 자기가 애송이라는 것을 알면, 살만 할 거야.’

몇 년 전 친구가 나에게 해 준 말이다.

강원 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항상 뒤따르는 것이 이 ‘힘듦’이다. 고로 늘 항상 ‘애송이’인 나 자신과 직면하고 있다는 말이다. 출가하기 전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 흐르면 물결 흘러가는 대로 놓아버린 애송이가 대중이라는 벽 안에서 이리 튀고 저리 튀지도 못하게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 버렸으니 오죽 하겠는가. 더군다나 이 벽 안의 큰 어른은 ‘삶은 괴로움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으니, 이만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될 따름이다. 그런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참 보통일이 아니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 더욱 어렵다.’

부처님을 비롯한 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누누이 강조해 온 이 한 마디에 몸과 마음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따름이다. 오늘도 상처투성이 애송이의 투정어린 울음은 그치지 않는다. 定慧社

나의 영원한 벗. 송일스님께... 심법스님 | 사집

송일스님! 심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누난 어디에 있든 늘 잘 지내는 사람이니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디 불편한 곳이 있지는 않은지. 살은 많이 안 쪼는지. 아프던 무릎은 계속 아픈지. 석남사 군기가 겁나 뻑세다던데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궁금한 것이 산더미 같답니다. ㅋ

그리고 보니 누나랑 저랑 생이별(?)한지 어언 2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그 사이 전 벌써 사집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누난 드디어! 고대하던 운문사 강원 입방을 코앞에 두게 되었네요. 행자교육원에서 바로 옆 건물에서 교육받고 있던 누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땀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던 그 느낌이 여전히 절 사무치게 하는데. 꽃은 무던히도 두 번씩이나 피고 저 버렸고, 어느덧 대지는 다시금 흰 눈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 동안 누나는 어떻게 변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발전했나요? 참된 진리의 길을 영원히 함께 걸어가자고 굳게 다짐했던 그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나요? 누난 강한 사람이니깐 아마도 더 굳건한 신심으로 나날이 발전해가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제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만약 지금 제 모습을 누나가 본다면 불곰같이 화를 내며 막 패러 달려들 것 같아요. 그 만큼 요즈음 들어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누나한테 몹시 미안하네요.

사실 예전에 산에 다닐 때에 비하면 몸도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전적으로 핑계일 뿐이라고 하시겠지만! 흥. 핑계가 맞긴 하지만 ㅠㅠ). 하루하루 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날이 많답니다. 오히려 도반들이랑 다투거나 짜증낼 때도 많고. 괜시리 외로워지기도 하고. 일없이 위로받고 싶어 할 때도 있구요.

중의 가장 가까운 벗은 외로움이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아직은 선뜻 손 내밀어 고놈이랑 벗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전 지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법' 을 이렇게 아프게 배우고 있나봐요.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ㅋㅋ 암튼 무엇보다도 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저에겐 송일스님이 있고 자원스님이 계시답니다. 제 말 맞죠?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수두룩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면 녀이 나가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려고 할 때마다 두 분의 존재는 제게 밝은 등불이 되고, 채찍이 되고, 큰 힘이 된답니다. 1000년 전. 소동파가 '동이든 서이든 남이든 북이든 하나의 하늘일세.(南北東西只一天)' 라고 노래했듯이, 비록 두 분을 예전과 같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그래서 가끔은 무척 슬프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먹물 옷을 입고, 같은 수행자로서 늘 변함없이 정진하고 계시는 두 분이 항상 제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 힘을 내게 된답니다.

이 곳 절집에 들어와 진실로 뜻이 통하는 도반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큰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욕심내고, 불평하고, 게으름 피우는 제 모습. 퍽! 퍽!(←편치맞는 소리.) 반성 또 반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송광사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예불을 모시러 법당으로 향하는 길. 별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민 어둔 밤 하늘 속을 작은 은구슬처럼 반짝거리면 내리던 눈을 보니, 누나한테도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눈 덮인 지리산 등허리를 밟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던 그 소중한 기억들처럼. 오늘같이 아름다운 날에는 항상 누나랑 자원스님이 생각납니다. 아무래도 전 두 분 곁에서 평생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성 싶어요. 아무쪼록 몸 건강히 정진 잘 하시길! 운문사 강원 들어가기 전까지 밥도 마이 묵고 체력도 단디 보강해 놓으시길! 보낼래야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실없이 웃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띄웁니다. 나의 영원한 벗 송일스님께 못난이 심법이 드립니다. **定慧社**





독후감 「탄이초」 신란스님과 정토진종



본원사

이 글은 유이엔 스님이 쓴 탄이초를 소개하는 독후감이며 덧붙여 신란스님과 정토진종에 대한 소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을 쓰면서 대부분 인터넷의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정토진종에 대한 번역된 자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이초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을 제외한 신란스님에 대한 정보와 진종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지 못하며 매우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설산 | 편집위원

가까우면서 먼 나라. 일본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양국의 불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근현대 불교학의 중심지로 많은 학자들과 스님들이 유학하고 왔지만 정작 일본의 불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정토진종淨土眞宗(이하 진종)은 일본의 최대종파이면서도 왜색불교, 일제 강점기 종교침략의 선봉이었다는 사실 등의 나쁜 이미지 외에는 알려진 것도 알 수 있는 자료도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중에 탄이초는 짧은 한 권의 문구들로서 일본인들의 종교적 사유와 일본불교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이초

「탄이초」는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스님의 법어를 수록한 것으로 제자 유이엔 스님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탄이초는 불교 서적이지만 일반에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책입니다. 출판사의 서평을 보면 “모든 책 중에서 단 한권의 책을 고른다면 탄이초를 고른다” 는 일본의 대표적인 철학자 미키 기요시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논어와 서구의 바이블에

비대어 일본에는 탄이초가 있다고 설명할 정도로 일본에서 탄이초의 위상은 사상적으로도 매우 높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사후편과 탄이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 18장 중 전반 10장까지의 사후편에서는 스승의 가르침 본뜻을 기술하였습니다. 남은 8장에서 이 책의 제목대로 스승의 뜻과 다름(異)을 탄식(歎)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승의 사후에 그의 신심과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안타까워하며 비판한 유이엔 스님의 긴 한숨입니다. 탄이초를 읽기 전에 우선 진종의 개조인 신란스님의 행장에 대해 간단히 적어봅니다.

신란스님(親鸞 : 1173~1263)

스님은 9세에 천태종에 출가하여 히에이산에서 20년간 수행했으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고 산을 떠나 내려와 교토에 있는 룻카쿠당[六角堂]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며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님은 구세관음(救世觀音)을 친견하고 곧 평생의 스승인 호넨(法然)스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정토문(淨土門)에 들어서게 됩니다.

6년간 스승의 지도를 받던 중 막부는 염불을 금지하

고 호넨스님의 제자 2명을 참수합니다. 그리고 호넨스님은 도사 구니[土佐國]로 신란스님은 에치고 구니[越後國]로 유배됩니다. 이 시기 스님은 에신니란 여인과 결혼하여 이후 일본의 스님들이 대처하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신란스님은 5년간의 유배생활 끝에 사면되었는데 이때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고, 또한 이 무렵 일본 전국은 잇단 가뭄에 의한 기근으로 민심이 흉흉한 시기였습니다. 사회 전환기의 잔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 스님은 악인정기 사상의 구제관을 완성하고 관동으로 이주해 20년간의 포교활동을 시작합니다. 만년에는 교토로 돌아와서는 저술활동에 주력하였고 전처럼 적극적인 포교는 하지 않았으나 서신을 통해 계속하여 교화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주요저서로 「교행신증」, 「정토화찬」, 「고승화찬」 등이 있습니다.

탄이초. 무엇을 믿는가?

만약 정토법문을 한 구절로 한다면 ‘아미타불을 믿고 염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같은 정토불교 안에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미타불을 믿는다는 의미는 크게 아미타불의 본원과 명호, 그리고 극락왕생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란스님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래의 서원은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며 오로지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다.” - 제 1장 -

신란스님이 사상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 구절에 있습니다. 신란스님의 사상은 크게 타력본원과 악인정기 사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은 아미타불의 절대적 타력에 의지한다는 뜻에 다름없습니다.

이러하면 정토법문에서는 범장비구의 48원 중에 특히 제18원을 중요하게 여겨 본원이라 합니다. 십념(十念)하면 정토에 태어난다는 ‘염불왕생원’입니다. 하지만 이 십념(十念)이란 구절은 그동안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글자대로 10번 염하는 것인가, 절절한 신심으로 일심(一心)으로 염불하는 것이 아닌가, 많이 하면 칭명의 공덕이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 등등 생각

하기에 따라 어떤 해석도 가능하겠지요.

물론 정토문의 스님들은 이러한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답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신란스님은 이에 대해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염(無念), 즉 염불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신란스님에게 염불은 수행이나 공덕이 아닌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미타의 본원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위 구절이 신란스님의 본원, 즉 절대 타력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의 구제는 아미타불의 힘입니다. 우리의 염불이 다만 미타에 대한 보은(報恩), 그 이상이 된다면 이는 자력으로 왕생하겠다는 것으로 본원의 뜻에 어긋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본원을 믿지 못하는 염불이기 때문입니다. 신란스님에게 있어 미타의 본원은 여래가 시방세계에 선포한 약속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란스님의 염불은 여래의 작용이며 불가사의한 부처의 영역이므로 중생의 자력과 사상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신란스님의 이해라 하겠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이를 구했는데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 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나가는 행인을 간절히 불렀기 때문에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정말 주객이 전도된 일 아니겠습니까.

염불이라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사리 분별을 넘은 근본도리다. - 제 10장 -

오직 아미타불 본원의 힘에 의한 것일 뿐, 자신의 힘을 초월한 것이기에 수행도 공덕도 될 수 없는 것이다.

- 제 8장 -

어떻게 염불하는가?

신란스님의 평생의 스승인 호넨(法然)스님은 ‘전수(專修)염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종파불교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여타의 다른 방법은 철저히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토불교의 교판은 우리가 무명을 벗는 길을 이행(易行)과 난행(難行), 성도문(聖道門)와 정토문(淨土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수염불을 하자면 성도문 즉 자력의 난행은 철저히 배제되어

야 합니다. 따라서 신란스님이 말하는 믿음에 이르자면 우선 자력문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탄이초는 결국 염불에 대한 책이며 그렇기에 탄이초의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이 자력의 염불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신 부모의 천도를 위해 단 한 번도 염불을 한 적이 없다. - 제 5장 -
나 신란은 단 한명의 제자도 둔 적이 없다. - 제 6장 -

위의 두 문장은 자력의 염불을 비판하는 논리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니다. 부모의 천도에 대해서 신란스님은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아미타불의 힘에서 오는 염불공덕을 '자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염불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 공덕으로 부모를 구제할 수 있겠지만, 염불은 자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명이 끝없는 윤회 중에 서로의 부모형제가 되어온 것을 모르고 오직 내 혈육만을 위해 염불하는 이기심을 경계합니다. 더 큰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력을 버리고 본원에 의지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란스님은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염불하는 사람들을 내 제자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토문의 가르침은 아미타불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원력으로 남에게 염불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란스님은 스승의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불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同朋) 다만 아미타불과의 대면일 뿐입니다. 어떻게 염불하는가. 선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토법문은 나무아미타불 6자로 이미 해 마쳤습니다.

누가 왕생하는가? 악인정기

탄이초를 읽으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진종의 인간관은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니 단 하나의 무주상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중생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들이 절대적 타력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수행하여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묵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염불이 아닌 다른 수행으로 성불할 수 있는데 스승인 호넨성인에게 속아 염불한 결과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수행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나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을 피할 길은 도저히 없는 까닭이다. - 제 2장 -

신란스님은 염불이 진정한 정토왕생의 교법인지 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온 문하생들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독한 패배의식과 자기비하로 볼 것인지 반대로 진실된 구도에 대한 사유의 결과로 볼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일 것입니다. 나아가 악인정기 사상은 마치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란스님에게 선과 악은 어떤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는 데는 당시 시대의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시기 일본의 불교는 귀족불교, 관승불교로써 천황과 귀족의 지지(支持)위에 매우 타락했을 때였고 사회는 새롭게 가마쿠라 시대가 열리는 격동기였습니다. 전란과 기근 중에 살아남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과 내일 없이 살아가는 밑바닥 민중들의 모습을 눈앞에 두고 "악인이야말로 아미타불이 구제하는 대상"이라 신란스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진종의 가르침에 있어 선과 악이란 것은 믿음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를 윤리적인 악의 허용으로 오인하는 것은 절반만 맞춘 것입니다. 진종에서는 본원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며, 바로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나아가 오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범부 중생들과 악인의 성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이름 - 나는 절대 살인은 못할 것이다?

스님은 "악이 된다고 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여 조악을 용인하지 않습니다만 이 살생의 죄가 왕생을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원을 믿는 것과 계율을 지키는 것, 혹은 죄를 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란스님의 업에 대한 견해입니다.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치고 싶지

않아도 백 명, 천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중생이며 우리들의 삶이란 것이 스님의 주장이죠. 이를 두고 숙명론이라 의심하는 것은 반사적인 반응이지만 이는 기우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탄이초의 번역자는 이 부분의 해설에서 밀그램의 심리학 실험을 인용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비롯한다는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밀그램의 실험은 나치대학살이 끝난 시절로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잔인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커다란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상황에 조작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명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을 설계한 짐바르도 교수는 이후 이에 대한 자신의 저서를 루시퍼 이펙트라 이름 지었습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을 선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 실험은 ‘아니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많습니다.

독일인으로써 나치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가, 80년 광주 항쟁에 투입된 군인들은 이웃 앞에 어떻게 그토록 가학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출가 승려로써 만약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계를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가. 이 두 실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매우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닥쳐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개인적 양심에서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위의 일반적인 해석은 가해자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도와주거나 이를 제기하거나 불복하거나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일종의 악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악의 기여자는 해를 가하는 당사자를 넘어서서 보이지만 보려하지 않고 들리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침묵의 합창단이다.”

- ‘행동하지 않는 악’. 루시퍼 이펙트 -

중생은 업력에 끌려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이를 두고 악이다 죄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

다. 아시다시피 정토법문에서 정토는 업을 가지고 왕생합니다. 그렇다면 중생이 아닌 그 누가 왕생한단 말인가요. 저는 과연 누구나 불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생의 조건

“선한 사람일지라도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으니 하물며 악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제 3장-

이 문구는 탄이초에서 가장 유명하며 저는 신란스님이 생각하는 왕생의 인(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토법문에서는 신(信), 원(願), 행(行)과 오념문(예배, 찬탄, 작원, 관찰, 회향)을 왕생의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란스님은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에 이르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진종의 비유에는 이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헤엄을 잘 치고 다른 이는 헤엄을 잘 치지 못한다면, 부처님은 당연히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성도문에 비유하고 헤엄을 잘 못 치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며 악행만을 할 수밖에 없는 악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진종의 왕생은 자신이 번뇌 구족한 중생임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탐욕 앞에 얼마나 자유로운가. 만약 나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미타의 본원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번뇌구족. 즉 업연을 이해한다면 곧 회심(回心)하여 아미타불에 대한 신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미타불이 오 겁(劫)동안 세우신 서원을 생각해보니, 오직 나 신란을 위한 것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업을 지닌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세우신 본원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신란스님은 29세에 위와 같이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

을 결정하여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심(回心)인데 신란스님은 이를 자연(自然) 회심이라 합니다. 진종에서는 본원을 무심코 믿는 것을 자연(自然)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연회심(自然回心)이 신란스님이 생각하는 왕생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신란스님의 불교에 대한 언급을 보면 왜 그렇게 극단적일까 생각될 정도로 매우 이원적입니다. 모든 진실된 것은 오직 아미타불에게만 있고 중생에게는 거짓된 것 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것 밖에 없는 중생이 어떻게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을 자연히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심코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미타불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념에 회심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왕생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이고 아미타불이 불가사의하게 회향하신 공덕인 것입니다.

절대 단 하나의 진실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아미타불을 믿을 수 있는가.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을 낸 바로 그 순간 불가사의한 아미타불의 타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신란스님은 이를 두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불가사의라고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뇌가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중생이기 때문에 왕생이 결정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아미타불에 믿고 맡기는 것. 절대 타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이 아닌 결과의 염불, 보은(報恩)의 염불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종에서의 왕생의 조건은 일념 이전의 신심이며, 이는 곧 극한의 신앙과 예리한 양심입니다. 진종의 논리가 특색이 있는 것은 이러한 바탕으로 현세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왕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사후의 왕생을 희망하며 현세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회심. 곧 신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웃종교, 그리스도교의 견해

“나태하고 게으른데다 몸이 좋지 않아 강원일정은 하루하루 겨우 버티어나가고, 머리가 나빠서 수업이라고

는 따라갈 수 없는 저에게 탄이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심이 부족하여 추운 날에는 법당에서 예불하는 것도 싫어하는 저에게 아미타불은 마치 동네 형처럼 제 옆에 앉아 괜찮다고 도닥거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이 문장은 탄이초에 대한 제 초벌 독후감에 있는 내용 중의 한 문장입니다. 놀랍게도 마치 교회에서 하는 간증처럼 내 옆의 하느님,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느님과 같은 아미타불을 묘사하며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진종의 논리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토진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이웃 종교인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일본에 처음 도착하여 정토진종을 알게 된 후에 루터의 이단이 여기에도 있다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종이 서구에 알려진 뒤 절대 타력에 의지하는 매우 흡사한 교리에 많은 신학자들이 당황하였고 이에 대해 많은 사유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는 진종의 교리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몇 가지 비판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인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래의 종교 간의 대화는 서로 포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굳이 약간 배타적인 모습이 보이는 바르트의 견해를 인용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정토신앙을 신학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미타불의 명호가 아니라면, 나아가 역사적인 인간 고타마 싯다르타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교에 대한 어떤 귀결을 가져오게 될까요. 어쨌거나 근래의 신학은 불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제가 잠깐 이들의 견해들에 대하여 같은 논리로 반론을 하자면 첫째, 하느님의 자리에 아미타불을 대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초월적이고 인격적 존재

가 아닙니다. 미타의 타력은 만물을 주재하듯 사바세계에 미치는 힘이 아니라 서원이 성취된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부처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 것으로 불자에게 부처의 속성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에서 비롯한 회향이 미타의 타력인 것입니다. 덧붙이면 구원이라는 작용은 같으나 그 내용은 자리아타라는 대승보살의 서원이 성취된 힘에서 비롯한 회향인 것입니다. 중생이 곧 아미타불입니다. 여기서 다만 신란스님의 사상은 자리도 이타도 타력이라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신란스님의 악인정기 사상과 자력비판을 기독교의 원죄에 배대하고 일종의 죄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에 대한 비판과 악인정기 사상은 신란스님의 업에 대한 진술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불교의 중생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불타를 탈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하느님을 불교 교리의 공이나 진여에 배대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신관에서 비롯한 인격적 하느님에 반하여 탈인격적이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근원적이고 근원적 실체이며 혹은 존재 그 자체인 하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적인 이해에서는 매우 이질적입니다. 공이란 것은 유와 무를 떠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유무를 떠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을 포기할 수 없다면 결국 유무를 떠난 절대적인 유(有)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과연 공의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세 번째, 하느님을 신성으로써 말하고 불성에 비유하고 있는데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표현은 브라흐마나 아트만과 같은 힌두적인 이해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래장과 같은 논리로써 신성을 말한다면 누구나 예수님과 같은 독생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석이나 함석헌 선생의 사상에 근접하는 것으로 이분들이 비록 한국의 큰 사상가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정통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와 같은 견해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와 같다 하더라도 불성은 견공을 제외하고는 누

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문구로써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연기적인 바탕 없는 불성과 여래장의 천명은 불교 안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비판 역시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 정확히 신학의 견해가 무엇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너의 종교는 이런 것을 아직 모른다는 종교적 충족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간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 아니었던가. 서로간의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는 타 종교에 대해서 겉으로는 호의적으로 대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부처님의 법에 비해 다른 종교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토진종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많은 국내 자료들이 신학대학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의 깊은 불교 이해를 보면서 정작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맺으며 (속제로 신란스님 읽기)

신란스님의 정토진종은 역사적으로 가마쿠라 신불교에 이름 붙여집니다. 가마쿠라 불교는 새 시대의 새로운 불교 해석인 것으로 현재 일본불교의 특색이 이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불교는 매우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기존의 불교는 오히려 중생을 착취하는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이었고 이에 둔세승이라 불리는 기존의 관승 교단에서 벗어나는 스님들이 속출했습니다.

가마쿠라 신불교는 바로 이러한 둔세승들에 의해서 성립된 불교입니다. 호넨, 신란, 도겐, 니치렌 스님 등 가마쿠라 신불교의 주요 조사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때 성립되었던 정토종, 정토진종, 조동종, 법화종 등은 현 일본의 주류 종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거리의 성자라 불리는 잇펜스님, 일본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닌쇼스님 등이 있습니다. 잇펜스님은 신분이 낮은 비인(非人)들과 다니면서 춤과 염불을 했던 거리의 성자였고, 닌쇼스님은 진언율종의 조사로 한센 병 환자의 구제에 전력을 기울이신 스님입니다. 적극적인 섭중생계를 실천하신 율사로 보살로 불리었습니다.

오히려 마더 테레사를 인도의 닌쇼스님이라 불러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위에서 잠시 기술한대로 가마쿠라 불교의 특징은 어려운 격동기에 민중의 구제에 발 벗고 나선 점에 있습니다. 신란스님은 이 시기의 대표적 인물로써 특히 농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중을 위해 정토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비승비속으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신란스님의 불교가 가지는 의의는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을 위해 왕생의 길을 연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불교는 자신의 욕망 앞에 의연하고, 굳은 신심으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백척간두에 설 수 있는 보살의 화신과 같은 분들에게만 부처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만이 오욕락에 빠진 사바세계의 중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불법에 귀의하여 만인이 의식이 깨어난 보살과 같이 행동하고 서로서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가 될 때에만 이 세계가 정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정토가 이 데올로기가 됐을 때 불교는 왕실과 권력의 정치수단으로 쓰여질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불교는 중생과 민중을 무시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교육받은 이들을 우대하고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 복을 비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예를 들어 노 할머니 보살님들은 어려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무지한 중생으로 교육과 제도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중생의 무지와 이기심이 완전히 극복되어야만 정토가 구현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계는 인간계가 아닌 지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과 같이 끝없이 고통만을 받으며 스스로 구제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새벽 법당의 기복신앙을 행하던 신도님은 스스로 깨달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나만 불교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지독한 선민의식이 아닌가 의심해봅니다. 또한 이분들의 불교는 무지몽매하니 가치 없는 불교가 됩니다. 이렇게 불교를 가치로 따진다면 이는 오히려 자본의 논리가 아닌가요.

요즘 세상은 '부자되세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살아

갑니다. 남을 위한 베품도 마치 빌케이즈와 같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보시하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것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감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가 어려운 교리들을 모두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 다음에야 올바른 불교를 할 수 있다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문구를 상근기 지상주의로, 법을 자본주의 논리로 읽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게으르고 능력 없는 실패자인가요. 어려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등한 중생입니까. 작은 나눔은 더 큰 나눔에 비해 유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도님들께 많이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항상 법문합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르고 욕망과 이기심 밖에 없어도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하는 신란스님의 불교가 매우 좋습니다.

사바세계의 주체는 보살이 아니라 중생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수행하여 보살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론 더없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욕망에 허덕이면서도 우리는 깨달음과 왕생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뛰어난 몇몇의 각(覺)자와 보살들만의 힘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아닌 신의 다른 이름이겠죠. 설령 잘못된 길을 실패를 거듭하며 걸어가더라도 다수의 중생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만 정토는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란스님은 이런 중생들의 불교를 위해 적극적인 길을 열었다 생각합니다. 소수의 뛰어난 스님이나 재가자들이 아닌 다수의 저를 포함한 못난 중생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잘못을 범하며 또 욕망에 허덕이며 불교를 실행하기를 꿈꿔 봅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사실 저는 신란스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력불교의 끝에 있다면 진중은 타력불교의 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변을 살펴본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탄이초」는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마쿠라 불교가 새 시대를 위한 또 다른 불교 해석을 해내었듯이 우리의 불교도 이러한 역동적인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효스님이 그리운 하루입니다. **定慧社**

소년소녀가장에게 따뜻한 손길을



올 겨울 송광사에 눈이 유달리 많이 오고 있네요. 1월 9~10일 아이들과 겨울방학캠프를 열었습니다. 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산행도 하고, 선물도 받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는 순천, 구례지역에 8가정 12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아이들지킴이(후원자분들), 송광사 학인스님들, 순불청(순천불교청년회), 대불련(순천 청암대 대학생불교연합)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후원 물품(반찬, 동화책, 장난감, 옷, 학용품, 등)은 무엇이든 항상 기다립니다.

- ♥ 정기 후원금 : 1만원 ♥ 우체국 : 501676-01-002074 예금주 : 송광사 (소년소녀)
-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광사 강원 서공스님
소임자 : 혜문, 서공, 심법, 수암 ☎061-755-5302

송광사 전통강원 다음카페 개설

<http://cafe.daum.net/seung-bo>

송광사 강원스님들의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인터넷 공간을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강원 소식이나 강원 방부 공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고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정혜사(誌)」 후원안내

송광사 강원 「정혜사(誌)」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소식지입니다.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안내 : 송광사 강원 편집실 ☎061-755-5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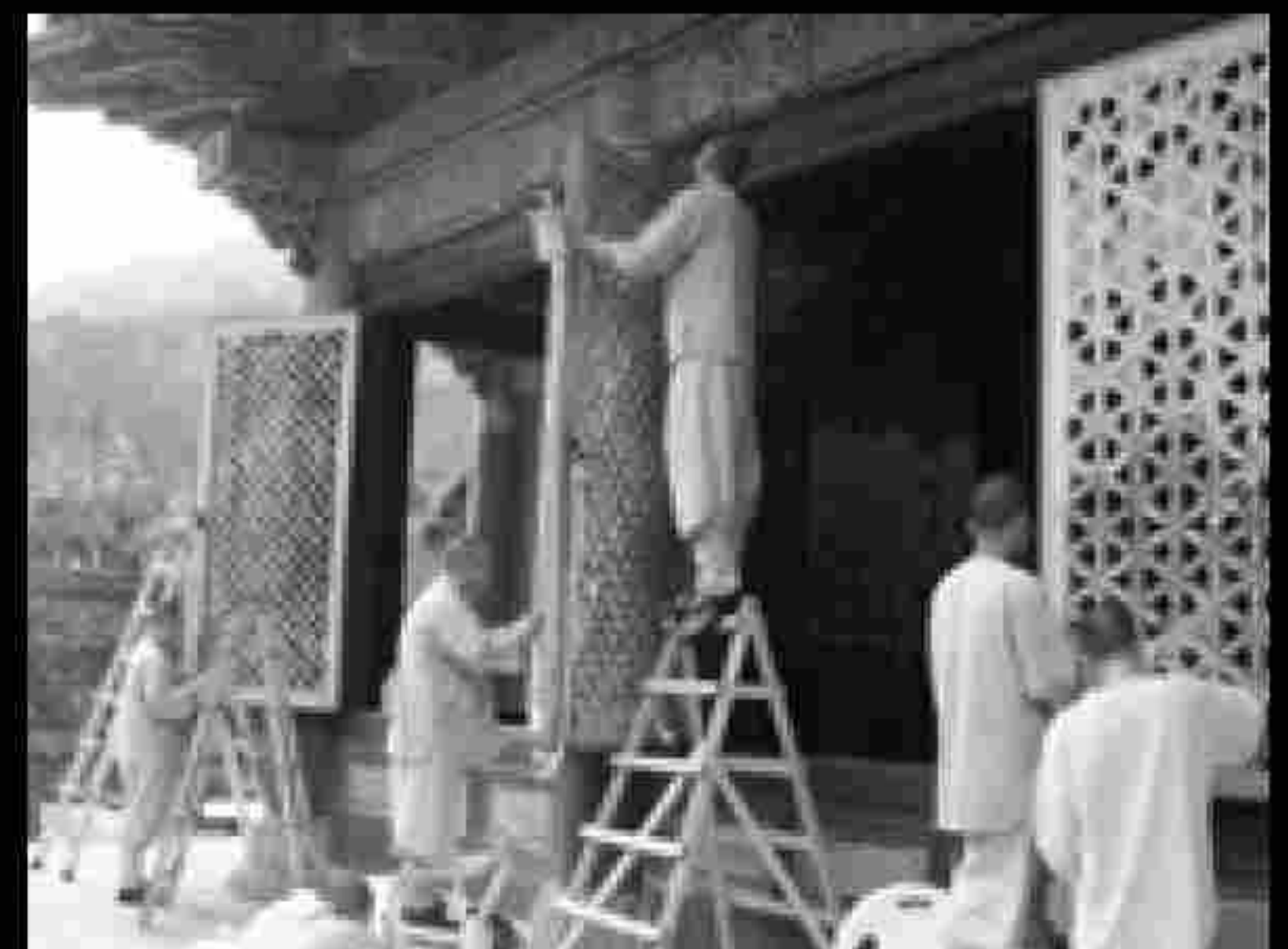
우체국 온라인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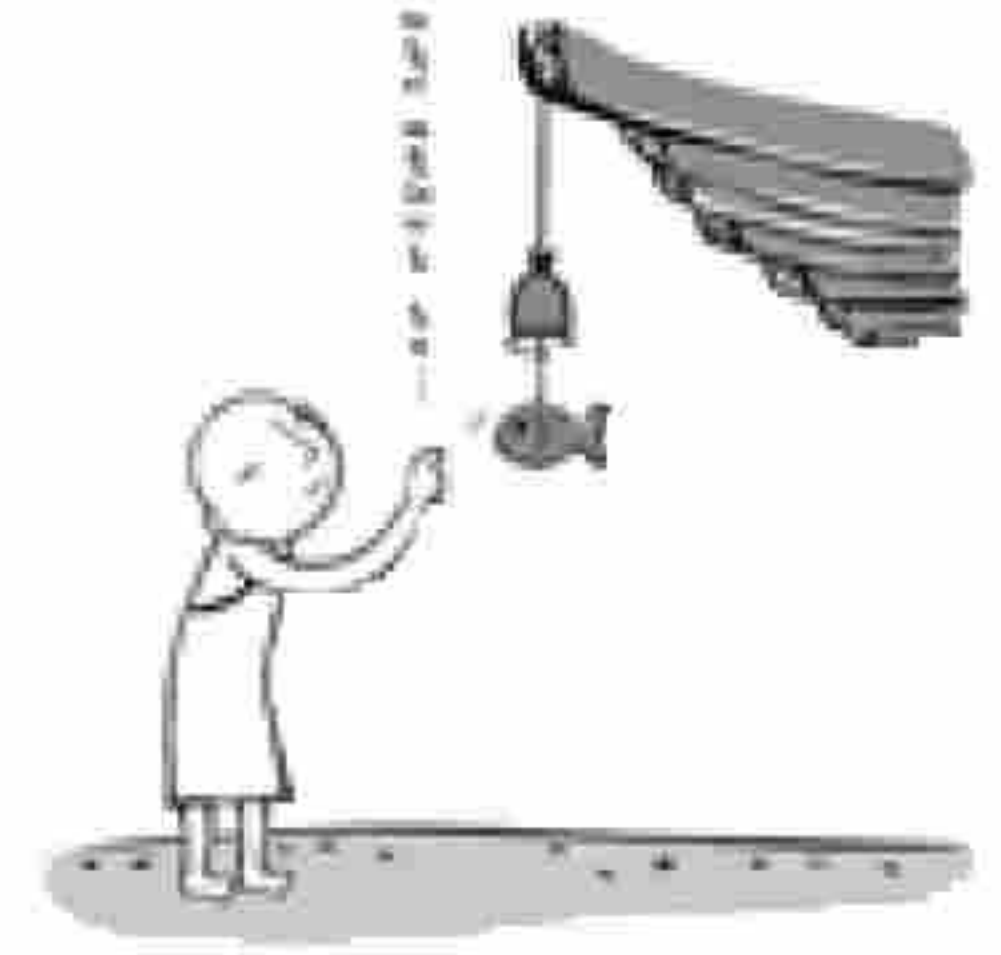
기축년 강원 소식

편집실



- 3월 10일 무자년 동안거 방학을 마치고 강원 복귀
- 4월 1일 봄산철 원족산행 - 해남 미황사와 두륜산
- 4월 21~22일 삼월불사 및 제 799기 보조국사 종재
- 5월 23~25일 하안거 결제 무장무애 기도 봉행
- 5월 25~29일 故 노무현 대통령 천도 발원 기도 봉행
- 5월 31일 일각대선사 추모재 봉행
- 6월 6일 하안거 용상방을 정혜사 큰방에서 짚습니다.
- 6월 19일 「불교 상담 심리학」 특강 - 황수경 강사
- 7월 5일 「건강한 먹거리가 인성을 좌우한다」 특강
- 7월 21일 반결제 포살과 방장 스님 법문 - 대웅전
- 7월 25~27일 「여래장 사상」 특강 - 원경스님
- 7월 29~30일 각 처소에 발을 치는 운력이 있었습니다.
- 8월 18일 취봉선사 추모재 봉행 - 지장전
- 8월 28일~9월 3일 백중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 9월 3일 하안거 해제 포살과 방장스님 법어 - 대웅전
- 10월 23~24일 '전국승가학인연합대회' 참가 - 법주사





- 10월 30일 효봉대선사 추모재 - 효봉영각
- 10월 31일 추계다례제 봉행 - 풍암영각
- 11월 4일~12월 23일 금강산림법회 봉행 - 사자루
- 11월 8~9일 법당 문 창호지를 교체 운력
- 11월 28~30일 동안거 결제 무장무애 기도 봉행 - 대웅전
- 11월 30일 동안거 용상방
- 11월 30일~12월 17일 도량 주변 낙엽 채집 운력
- 12월 1일 동안거 결제 포살과 방장 스님 법어 - 사자루
- 12월 1일 김장용 무 뽑기 운력
- 12월 21일 동지 팔죽 새알 빛는 운력 - 정혜사 큰방
- 12월 28일 구산대선사의 추모재 봉행 - 대웅전, 탑전
- 1월 14일 반결제 포살과 방장스님 법문 - 정혜사 큰방
- 1월 15일 「한국 불교의 역사」 특강 - 이봉춘 교수님
- 1월 16~22일 성도재일 가행 정진 - 정혜사 큰방
- 1월 20일 반결제 원족산행 - 조계산
- 2월 21~28일 동안거 해제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 2월 28일 동안거 해제 포살과 방장 스님 법어 - 대웅전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선정암, 신곡사, 부산관음사, 구산스님문도회, 금강암, 운주사, 원각사, 원각사청년회, 증심사, 길상사, 만경사 시공스님, 원효사, 보현사, 법련사 보경스님, 무각사 청학스님, 일지암, 보림사, 석종사, 수원 포교당 지성스님, 진화스님, 혜여스님, 도산스님 반연, (주)남원, 김유진, 최혜경, 박정란, 송원희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영선스님, 강주스님, 학감스님, 원오강사스님, 성우강사스님, 원주스님, 석불암 대정스님, 불일암 덕조스님, 운주사 주지스님, 약사사 정문스님, 포교국장스님, 선원, 자용스님, 정안스님, 영산스님, 수용스님 반연, 대일스님 반연, 해인강원 범선스님, 해인강원 해강스님, 광주 정안사, 종무소, 3차 여름수련회 일동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강원동문회, 혜도스님, 능엄스님, 김선아, 김갑숙, 김현정, 정순명, 강정구, 은현미, 김영선, 김숙희, 정판남, 김상빈, 김석진, 정윤서, 강은정(전근우)



구독안내

정혜사誌가 폐간되면서 발송 주소록 역시 처분되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다시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니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김갑숙, 김현정, 정순명, 강정구, 은현미, 김영선, 김숙희, 정판남, 김상빈, 김석진] 님은 저희가 정혜사지를 발송해드리고자 하니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 실상사 화엄학림을 취재하였으나 기획 단계에서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도움주신 주지스님, 선배 혜도스님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 수행자로서 편집기간 내내 동안 얼마나 백척간두에서 있었던 마음으로 편집에 임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 도반 스님들의 따끔한 경책 기다리겠습니다.

● 편집기간 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를 계기로 다음에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축(己丑)년 송광사 결제 대중



〈하안거〉

금일(今日) 결제대중(結制大衆)은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공부(工夫)해서
시주(施主)의 은혜(恩惠)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방장스님 뵈어 申-



〈동안거〉

삼가 들으니,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여의고 일어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심을 미혹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요,

일심을 깨달아 가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입니다.

미혹함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요는 모두 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권수정혜결사문 중에서 -

